DMZ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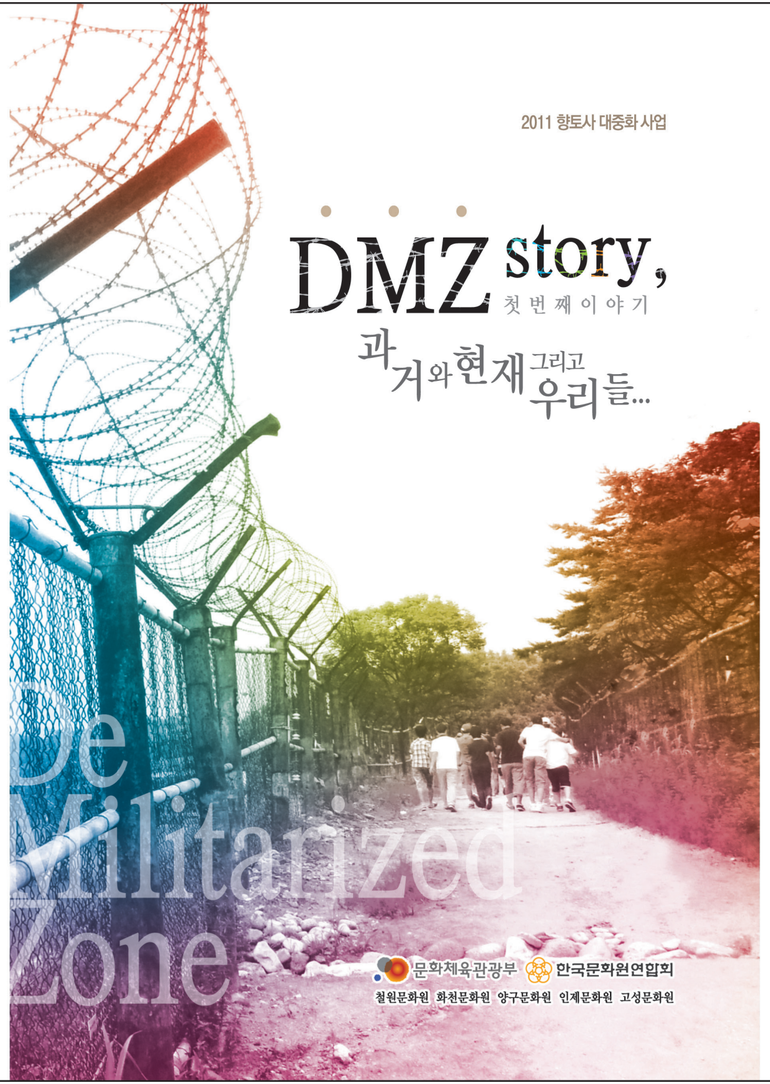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이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의 지원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 가 주최하는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의 결과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문화원 화천문화원 양구문화원 인제문화원 고성문화원

'DMZ스토리' 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접경지역 5개문화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함께 참여한 기획프로그램입니다. 각 지역의 중 / 고등학생들이 직접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인터뷰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스토리텔링 책자와 UCC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문화원 화천문화원 양구문화원 인제문화원 고성문화원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초 판 인 쇄 2011년 10월 20일
초 판 발 행 2011년 10월 25일
발 행 처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문화원

에 디 터 이민아
디 자 인 서정일
출판 · 기획 문화컨설팅 바라

함께한 분들
철원문화원 김철암
화천문화원 정종성
양구문화원 김인제
인제문화원 백창현
고성문화원 박명재
문화컨설팅 바라 이민아
문화컨설팅 바라 함덕문

도움주신 분들
김남덕 [강원사진연구소]
한상룡 [한국DMZ연구소]
이정배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로,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고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지역이다.

*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이 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이다.

격 려 사

『DMZ 스토리』는 전근대의 향토사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함께 보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강원도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5개문화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수집, 발굴하여 『DMZ 스토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금번 사업은 60여 명의 청소년이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을 조사하고 그 곳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DMZ 접경지역의 독특한 삶의 문화를 책자, 사진, 동영상 등의 결과물로 담아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 책자가 완성되기 까지 청소년들이 땀 흘리는 열정과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수고와 열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밑거름이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지도하신 선생님들과 문화원에게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이번에 발간되는 『DMZ 스토리』는 전근대의 향토사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함께 보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울러 향토사가 대중화 될 때까지 지역을 이해하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1. 10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최 종 수**

DMZ스토리는...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DMZ 스토리'는 강원도의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발로 뛰며 직접 찾아낸 DMZ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리타분한 옛이야기를 꺼내어 누굴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는 접경지역의 삶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입니다. 또 지역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5월, 화천 DMZ아카데미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 5개 지역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고성부터 철원까지 DMZ투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성의 DMZ박물관과 통일전망대,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 양구의 방산자기박물관, 화천의 칠성전망대, 철원의 노동당사와 제2땅굴, 월정리역 등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접경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MZ스토리'는 철원의 민북마을, 화천의 산양리, 양구의 해안, 인제의 서화면, 고성의 대진항을 따라가면서 접경지역 삶의 이야기를 무겁고 어렵게 풀어가기보다는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접경지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야 하니 한창 공부에 바쁜 친구들에겐 부담되는 일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여름 땀 흘리며 고생한 친구들의 작품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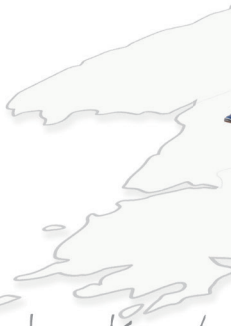
인터뷰에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접경지역 어르신들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문화원 관계자와 지도교사님들, 그리고 'DMZ스토리'와 함께한 멋진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몇몇 친구들의 소감을 옮기며 2011년을 함께한 'DMZ스토리'를 시작할까 합니다.

"처음엔 뭐를 써야 할지 고민도 되고, 쓸 것도 없어보여서 대충대충 하려고 했는데 점점 DMZ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DMZ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DMZ와 정이 든 것 같다."

"서로 과시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유치한 다툼보다는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현재그리고우리들...



목차 contents

Chapter 1. 철 원
민북마을을 통해 돌아본 지난 날 10

Chapter 2. 화 천
산양리를 지켜온 사람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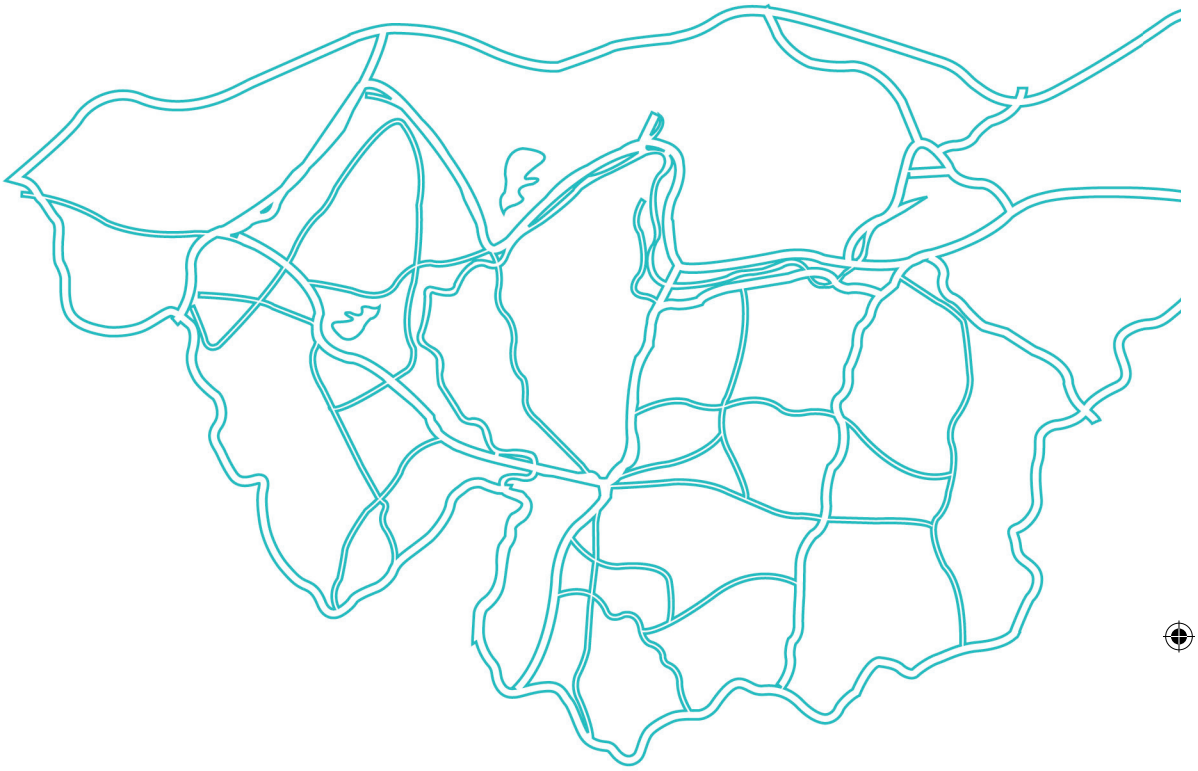
Chapter 3. 양 구
해안에서 만난 사람들 66

Chapter 4. 인 제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일의 염원 98

Chapter 5. 고 성
동해 최북단 대진항 이야기 118

부록
사진으로 보는 DMZ스토리 part 1.DMZ스토리 발대식 146
사진으로 보는 DMZ스토리 part 2.DMZ투어 160
사진으로 보는 DMZ스토리 part 3.못다한 이야기 174

DMZ
STORY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chapter 1. 철원

철원군

유곡리, 생창리, 마현리, 대마리, 양지리

민북 마을을 통해 돌아본 지난 날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민북마을, 그 시련의 역사

철원군은 수복지역이다. 수복지역은 6.25전쟁 전에는 북한 영토였다가 전쟁 후 남한 영토로 바뀐 지역이다. 3년간에 걸친 치열한 전쟁으로 철원지역은 초토화되어 인구 2만이 거주하던 구 철원읍 시가지는 잿더미로 변했고, 그 곳에 살던 주민들도 80% 이상이 사라졌다. 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철원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던 옛 고향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곳에는 휴전선이 그어지고 DMZ(비무장지대)가 들어서고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군인과 군부대만 들어섰다.

수복 초기에는 미군정이 새롭게 건설한 민통선 밖의 정착촌에 머물며 출입증을 교부받아 자기 농토에 들어가 농사지을 수 있었다. 자기 논에 물을 대려고 몰래 움막을 짓고 논에서 하루 이틀 숙박하는 이들도 생겼다. 그러다 아예 농번기 때는 농사지을 남자들만 일정한 장소에 모여 천막을 치고 유숙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받을 정도로 군인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했다.

전쟁의 상흔이 가라앉고 안정되면서 주민들은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고, 정부에서는 휴전선 인근 수많은 황무지와 유휴지를 개척해 농지를 확장함과 동시에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북심리전 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민북마을(선전마을)을 건설한다. 초창기 자립안정촌과 중기에 가장 많이 건설된 재건촌, 후반기 파주 대성동과 철원 유곡리 두 곳에만 시범적으로 건설된 통일촌 등이 있다.

그렇게 개척과 성장의 상징이던 민북마을에도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커다란 시련이 닥쳤다. 오로지 잘살아보겠다는 개척정신으로 터전을 마련한 입주 1세대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그를 이어받은 2세대들은 농가소득 저하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마을에 애기울음소리가 그친지는 이미 오래고 점점 빈집이 늘면서 황량함마저 감돈다. 1960~70년대 입주 초기에 아무도 찾지 않던 황무지에서 지뢰를 헤치며 목숨 걸고 개간해 문전옥답으로 만들었더니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불쑥 땅임자라며 나타난 불청객으로 인해 마을은 평지풍파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유재

▼ 철원의 대표적인 안보관광 코스 노동당사. 전쟁의 흔적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 민북마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전쟁의 흔적들

산권 문제라며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그 사이 땅을 빼앗기는 일이 속출했고 2004년 전방을 휩쓴 부동산 광풍은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민북지구 개척이 철원군 재건이고 민북마을 변천사가 철원의 현대사이다. 6.25전쟁의 산물인 휴전선과 DMZ, 민통선 그리고 그 안에 건설된 민북마을들 모두 시대의 산물이고 역사의 산물이다. 개척의 주인공들인 입주 1세대들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있어 이제 민북마을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일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민북마을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개척마을,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준 고향마을, 국가안보에 일익을 담당한 선전마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 완성마을로 기억될 수 있다. 하지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물꼬를 튼 남북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었던 통일마을' 로 기록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8.15 해방 후 인공치하였던 철원은 6.25 전쟁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다. 휴전으로 수복된 철원은 1년간의 군정을 거쳐 1954년 10월 행정권이 민정으로

이양되면서 민간인 출입금지구역이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민통선 안이 원래 고향이었거나 경작지가 있는 주민은 관할 군부대로부터 영농출입증을 발급받아 아침에 들어가 일몰 전에 민통선 밖으로 나와야 했다.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철에는 출입허용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빈번했고, 군부대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형국에서 작전상 불가하다고 맞섰다. 안보가 최우선인 60~70년대에는 모든 주민과 관공서가 관할 부대장의 눈치만 봐야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민통선 북방 미개척 토지를 개간하여 식량증산을 꾀하고, 적과 대치한 최전방의 안보태세도 강화하며, 전시효과로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민통선 안에 건설된 것이 이른바 전략촌(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인 것이다. 철원군에서는 1959년 철원읍 월하리 72세대를 필두로, 1960년 관전리 32세대, 1968년 철원읍 대마1리 150세대, 대마2리 97세대, 1970년 김화읍 생창리 100세대. 1973년 김화읍 유곡리 60세대, 1974년 갈말읍 동막리 50세대, 정연리 120세대, 1979년 동송읍 이길리 68세대, 양지리 100세대, 1960년 근남면 마현1리 66세대, 1968년 마현2리 60세대 등 총 14개 민북마을을 조성하여 975세대를 입주시켰다.

▼ 아직도 민북마을은 통행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곳

통일촌

유곡리

1973년 경기도 파주의 통일촌과 같은 날 동시에 입주한 유곡리는 파주 통일촌 80세대보다 20세대가 적은 60세대로 구성됐다. 70년대 이스라엘의 '기브츠'를 모방해 만든 유곡리는 전선방위는 물론 유휴경지 활용을 목적으로 대북한 우위성을 입증하기위해 건설된 통일촌이다.

북녘 오성산이 코앞에 보이는 유곡리는 이전의 재건촌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 가구당 500만 원 이상의 거금을 지원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만든 인공마을이다. 당시 5군단 예하부대에서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집과 논밭을 무상으로 분양한다기에 많은 후보자가 몰려 자격심사가 까다로웠고 예비 입주민들은 한 달 전부터 정신교육과 영농교육 등 집체교육을 받기도 했다.

◀ 유곡리 마을 입구 / ▼ 유곡리 통일촌 입주기념식(1973년)

▲ 유곡리 마을 안쪽

입주초기 입주민들은 매일 저녁 군보안부대원들의 점호를 받으며 생활하였고 군 출신과 예비역 출신 간에 이질감으로 마을 대소사를 결정함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입주 때 정부에서 인정한 경작권만 믿고 소유권 없이 개간한 토지를 두고 소유권자와 벌이는 '소유권 분쟁' 은 유곡리 주민들에게 끝없는 좌절감을 맛보게 했다. 이런 와중에 2000년과 2005년 민북마을을 휩쓴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유곡리 주민이 소유한 유곡리 땅은 이제 30%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다.

▶ 유곡리 통일촌 최승길 이장님

▲ 최승길 이장님

최승길 이장님 : 3사단 22연대에서 군생활을 10여 년간 하다가 유곡리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1973년 입주 당시 60세대가 입주했지만 세월이 흘러 현재는 50여 가구가 남아있어요. 정부에서 최신식으로 집을 지어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고, 뽑기식으로 집의 호수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6번을 뽑으면 나는 6호집 주인이 되었던 거지요.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서 대남방송이 아주 심했는데 집구조상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아이들은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부모님이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1가구당 논 3,300평과 밭 3,300평을 분배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요. 유곡리는 식수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150미터 암반수를 뚫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나중에는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서 먹었어요.

▼ 인터뷰 외에도 마을의 곳곳을 돌며 친절히 안내를 해주시는 모습

▶ 유곡리 이창호 어르신

▲ 이창호 어르신

이창호 어르신 : 1974년 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만 승합차정도였는데 그 차를 타고 와수리에 가서 장을 보고 했어요. 그러다 정식버스가 들어왔는데 하루 3번 운행을 했지요. 덕분에 학생들 통학이 쉬워져서 마을 주민 모두가 나가서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했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마을 위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운동회 할 때는 마을잔치였어요. 주민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아이들 운동회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도 폐교가 되어 참 아쉬워요.

▼ 들을수록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 이야기들

▲ 당시 주민들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는 유곡리 통일촌 버스개통식 (1973년)

▼ 학생들 뿐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에게 많은 추억을 남겼지만 지금은 굳게 닫혀버린 초등학교

생창리

민통선 북방마을인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마을로 가는 길목은 정겨운 시골길 그대로다. 여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대부분 마을을 떠난 생창리 마을의 정경은 푸근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한 편으로 힘겹게 살아온 부모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생창리 마을은 구 김화권의 중심지 였으나 63년 행정구역마저 철원군에 병합되었다.

6 · 25직전까지 마을 바로 옆에 김화군청이 있었고 김화권의 중심부로 영화를 누리며 당시 경원선과 금강산 전철을 통해 원산의 수산물과 철원의 쌀을 교환하는 등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통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 마을은 질곡으로 덮인 현대사의 아픈 상흔을 드러내놓고 있다. 인공치하인 40년대 후반 북한 정치보위부건물이 있었던 동굴, 끊겨진 암정교 등은 안보교육의 산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생창리의 주민들은 아직도 접경지역 지원법이 추진되어 남북관계가 나아지면 끊어진 금강산선 전철의 연결로 옛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 끊겨진 암정교

▲ 충열사

통일로 가는 길 생창리

▶ 생창리 노인회장 김영기 어르신

▲ 김영기 어르신

김영기 어르신 : 해방이 되고 나서 6.25전쟁 때 여기는 38선 이북땅이였지. 저기 보이는 오성산은 양쪽에서 포사격을 많이 해서 산에 나무가 없다고도 하고,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나무가 안자란다고 하기도 해요. 여기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부락이라서 정부에서 제대군인들 중에서 신원파악해서 100세대를 입주하게 했어요. 그때는 간첩이 나올 때라 예비군복 입고 나가서 보초도 서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락에 병기창고에서 군인들하고 잠복근무도 했어요. 밤이면 불빛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창문을 가리는데 보안대에서 집집마다 검사를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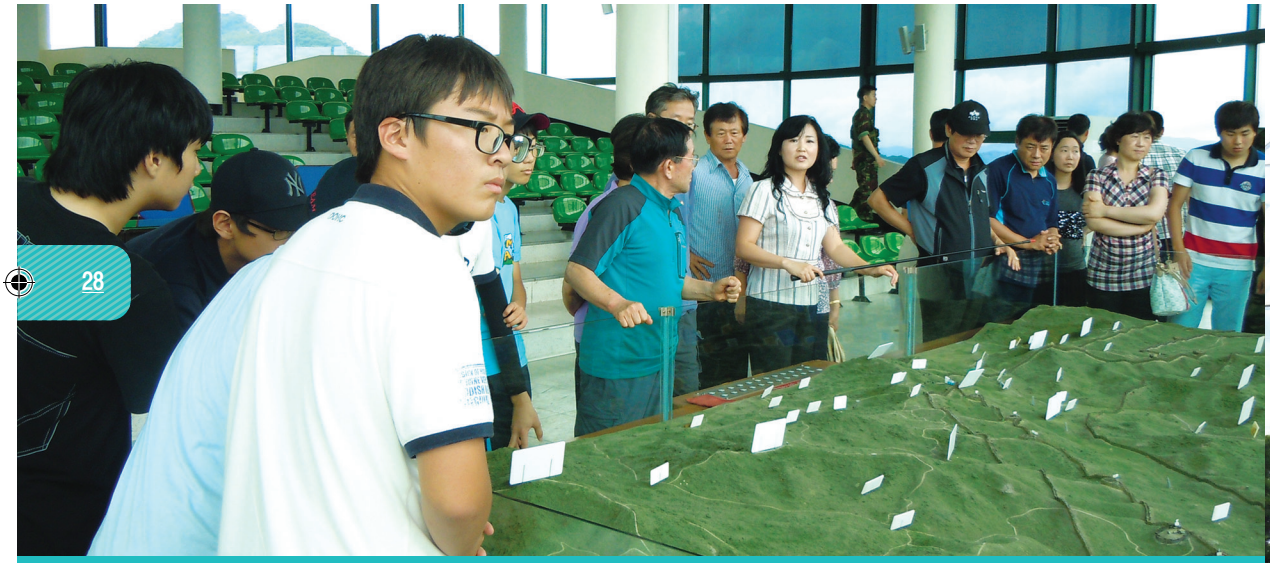
친척들이 놀러오려고 해도 김화읍사무소에서 신원증명서를 떼서 초소에 주고, 김화읍장한테서 확인서까지 받아야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려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초소에서 군인들이 찾으러오고 난리도 아니어서 한 번 왔다간 친척들은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며 다시는 안오겠다고 했었지.

남에서도 대북 방송을 하고 북에서도 대남 방송을 심하게 할 때는 마치 윗방에 라디오 틀어 놓은 것처럼 잘 들렸어요. 서로 욕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지. 지금은 서울에서 공기 좋다고 내려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저 윗마을에 두 집이 있는데 내려온 지 한10년쯤 되었을 거야.

▼ 생창리 입주 40주년 기념비. 인터뷰를 해주신 김영기 어르신의 이름도 발견할 수 있다.

마현1리

마현1리는 1959년 가을 추석에 불어 닥친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경상북도 울진 이재민 66세대를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경우이다. 이주민들은 1960년 4월 4일 울진초등학교에서 고향 친지들의 환송을 받은 후 23대의 군 트럭을 타고 횡성~춘천~화천을 거쳐 1400여리를 지나 3박4일만에 도착했다.



▲ 마현리의 대표적 안보관광코스 승리전망대 / ▶ 마현리 입주기념비

4월 7일 도착한 이들을 반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억새밭만 무성한 황무지와 60개의 군부대 천막이었다. 최전방 철책 아래 황무지에서 철통같은 감시 하에 천막생활을 하며 변변한 장비도 없이 손수 농지를 개간했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착 후 12일 만에 4.19가 터져 지원을 약속한 도지사와 군수가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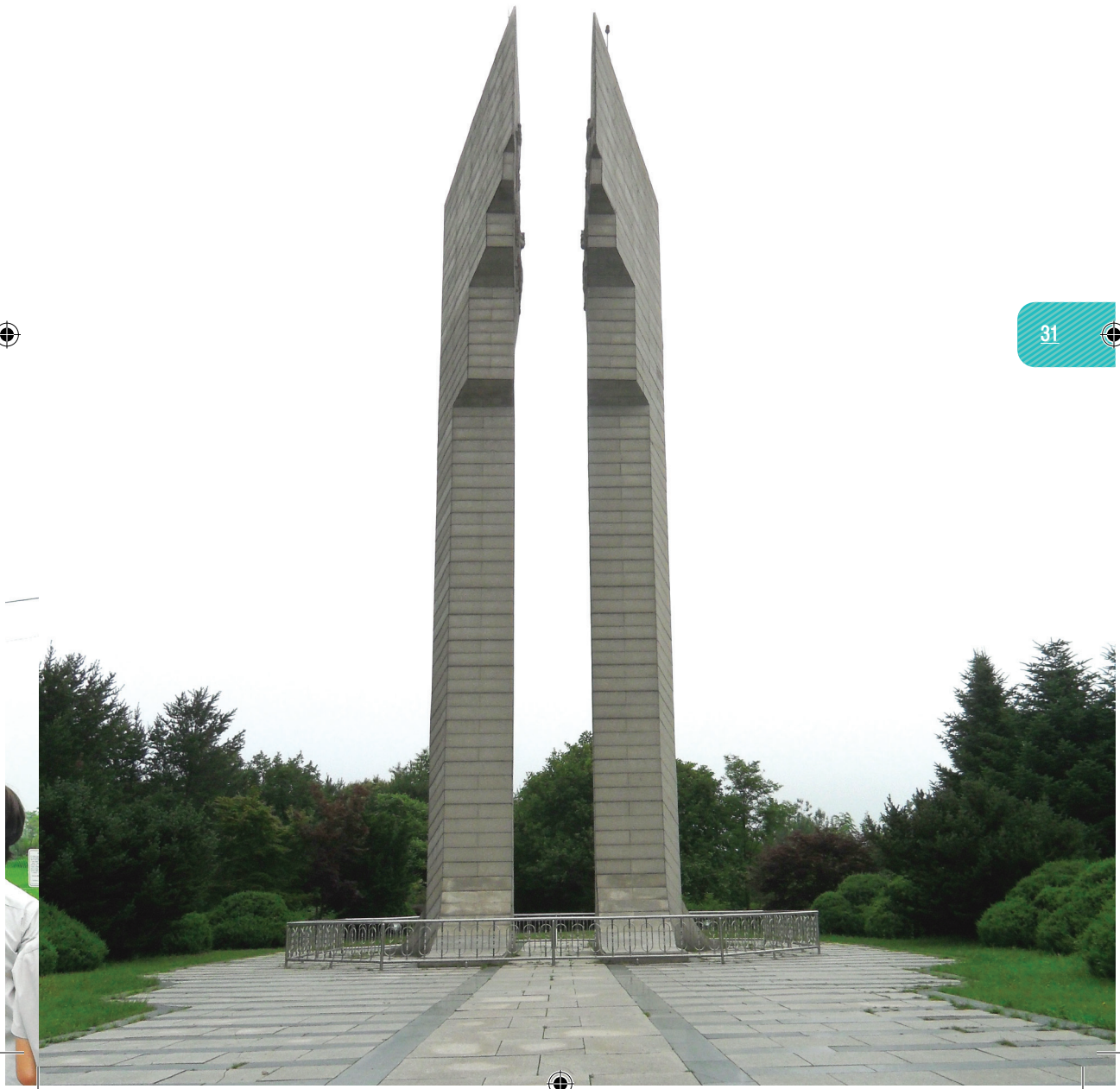
그 후 주민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보호나 지원은 전혀 없었고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하여 농지를 분배하고 삶의 터전을 닦은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입주 1세대 중 생존해 있는 남자는 이제 3명뿐이다.

대마리

대마리는 남북 간 체제 경쟁과 대치가 극에 달했던 무렵인 1968년 민통선 북방지역 농지 개간과 정부의 재건촌 건립 계획에 의거 반공정신이 투철한 제대 군인과 지역 주민 위주로 선발하여 150세대를 입주시켰다. 낮에는 농지개간에 힘썼고 밤에는 안보일선에서 총을 들고 적의 동태를 감시했다. 농지를 개간할 때 지뢰와 폭발물로 인해 팔다리를 잃고 불구자가 된 이도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구호나 보상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다. 오로지 그들끼리 피땀 흘리며 난관을 이겨 나갔다.

어렵게 농토를 일구어 자리를 잡자 이번에는 개간한 농지 원소유자들이 나타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다. 전쟁으로 지뢰밭과 황무지로 변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땅을 목숨 걸고 일구어 놓으니 이제 와서 내놓으라는 것이다. 농지 경작권을 인정해줄 테니 걱정 말고 입주를 권유하던 이들은 지금 아무 말이 없다. 그들의 피해를 누가 치유할 것인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마리 마을회관에 들어서면 정면에 자립갱생(自立更生)이라는 큰 현판이 걸려있다. 이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언제 누구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마을 주민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양지리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는 북쪽 6km지점으로 휴전선과 제2땅굴이 위치하고 있고 마을 뒤편에는 내수면적 330만㎡의 규모의 인공저수지인 토교저수지가 있어 철원평야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1976년 양지리 인근 농민들이 5년여 공사 끝에 '흙다리' 라고 불리는 곳에 흙다리처럼 생긴 둑을 쌓고 토교저수지를 건설했다. 그런데 그 토교저수지가 바로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청둥오리, 가창오리 수천 쌍이 몰려드는 철새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곳은 매년 10월 중순쯤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러기 30만 마리의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900여 마리와 독수리 300여 마리가 월동하면서 철새들로 장관을 이룬다.

마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2땅굴과 월정리역, 철원평화전망대, 아이스크림고지 등 분단의 역사 현장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로 유명한 월정리역에는 분단으로 끊겨버린 철도와 녹슨 철마가 덩그러니 남아 있고 모노레일을 타

▲ 마을 북쪽으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월정리역

고 오르는 철원평화전망대에서는 비무장지대와 평강고원, 북한선전마을이 보인다.

남쪽으로 눈을 돌리면 아이스크림고지 삽슬봉과 철새가 쉬는 동송저수지가 보인다. 아이스크림고지는 6 · 25전쟁 때 처절한 쟁탈전과 포격으로 산이 아이스크림같이 녹아내렸다고 해서 생긴 명칭이다. 1975년 발견된 제2땅굴은 현재 안쪽까지 개방되지는 않는다. 옛 철의삼각전망대는 현재 두루미전시관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바뀐 만큼 민북마을은 생태마을로 변하고 있다. 물론 5분을 못 가 만나는 군사시설은 우리네 분단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매년 양지리를 찾는 철새만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로운 왕래를 할 뿐이다.

"여기가 청와대보다 좋은 마을이야." 양지리 노인정에 들어서자 30여명의 어르신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마을 자랑을 해 달라니 대뜸 청와대보다 안전하고 좋은 마을이란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 출입하려면 6사단 검문소를 지나야 하기 때

문이다. 양지리 주민들은 주민증을 제시하면 무사통과다. 외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출입한다. 그 이후에는 마을에 연고지가 있거나 미리 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도둑이 생길 수가 없다. 청와대보다 철통수비라는 것이다.

처음 마을이 생겼을 때는 마을까지 대남방송이 들리곤 했다. 밤이 되면 군인들이 주민의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점호를 했다. 마을 바깥쪽 길옆으로는 지뢰를 설치한 땅도 있다. 나무들이 자라다가 지뢰를 밟고 부서져 꺾이고 엉켰다. '지뢰'라는 빨간색 문구는 이곳이 군사지역임을 실감케 한다.

양지리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안까지 버스가 다녔다. 요즘엔 마을 어귀를 모두 막아버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마을에 발이 묶여 시내 구경을 나가본 지 오래다. 양지리 옆 대마리와 정연리도 철원의 대표적 민북마을이었다. 하지만 최근 검문소가 마을 바깥으로 옮겨지면서 출입이 자유로워졌다. 양지리만 여전히 길을 삥~ 돌아 검문소를 거쳐 마을에 들어와야 한다.

▶ 양지리 문응재 어르신

▲ 문응재 어르신

문응재 어르신 : 일제시대 때 풍부한 지하자원인 유화철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만든 전철로 철원역에서 금강산 내금강까지 4시간 반이 걸렸는데 하루에 8번씩 운행이 됐어요. 당시 요금이 7원 56전이었는데 쌀 한가마 가격이라 부자들만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었지. 양지리역도 있었는데 농지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73년에 철새마을로 입주할 당시에는 역전 자리도 남아 있었어요. 처음 1년 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이평리 철원중학교까지 다녔지. 그래도 그 때는 마을에 학생들이 꽤 되었는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다 해도 5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후방으로 나가버리니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

DMZ

철원군 에필로그

두 사상의 대립,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비록 우리와는 사상도 다르고 그동안 쌓인 적개심도 적지 않지만,
이 냉전의 후유증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 있던 것은 아니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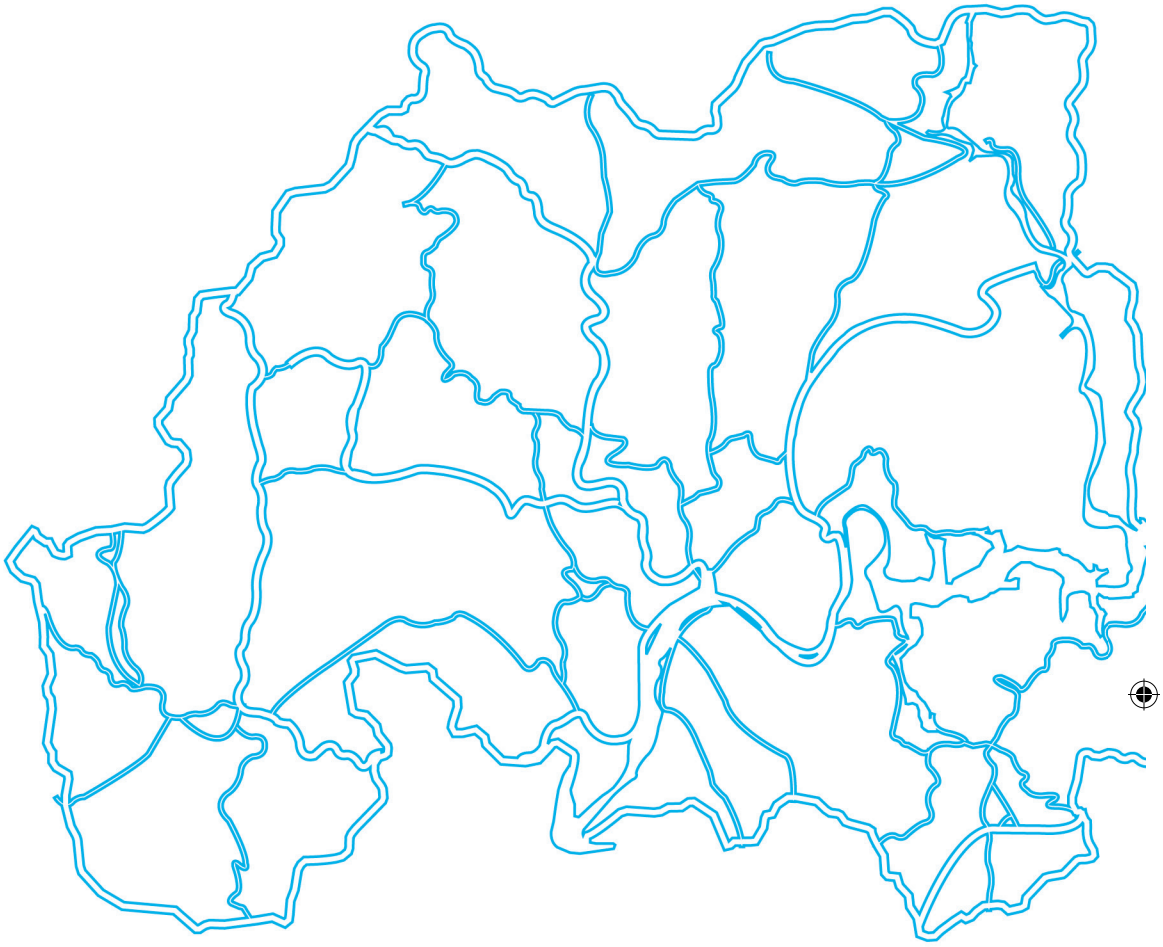
| 참여학생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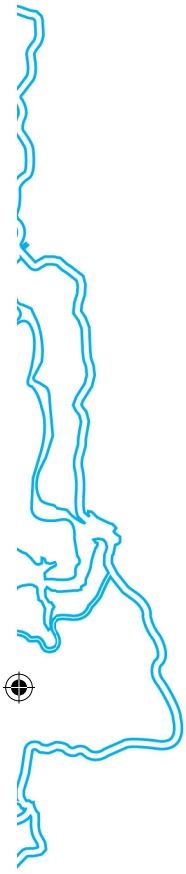
3학년 / 강태화, 정하늘, 현민섭, 박승주, 김혜영, 임영재, 현주이, 송유진
2학년 / 김법묵, 백종윤, 윤우빈, 이병관, 조우현, 윤석주, 김시환, 김익현, 이재덕
김윤지, 오민아, 이지환, 박용수, 조경진, 김동보, 전재범, 박근석

| 참여강사

김영규 향토사학자 이수민 향토문화연구회원 송인광 철원을 띄우는 그림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chapter 2. 화천

화천군

군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인생

산양리를 지켜온 사람들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산양리

현재 산양리의 민간인은 98세대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며 콩, 들깨, 오이, 호박 등을 출하한다. 장뇌삼을 기르거나 양봉을 하는 가구도 여럿이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간 자리에서 노인들은 마을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산에서 나물을 해서 내다 팔기도 하는데 곰취, 취나물, 더덕의 품질은 최상급이다. 독거노인들도 많다 보니 노인정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해결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오래된 나무에 실타래, 창호지, 울긋불긋한 천을 묶어놓고 돼지, 떡, 과일 등을 차려놓고 마을 공동으로 산제를 지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돌아가셔서 산제를 지내지 않은 지 10여 년 정도 된다.

전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모내기를 해주면서 대민지원을 했는데 그럴 때 주민들은 모내기 밥을 해서 대접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것도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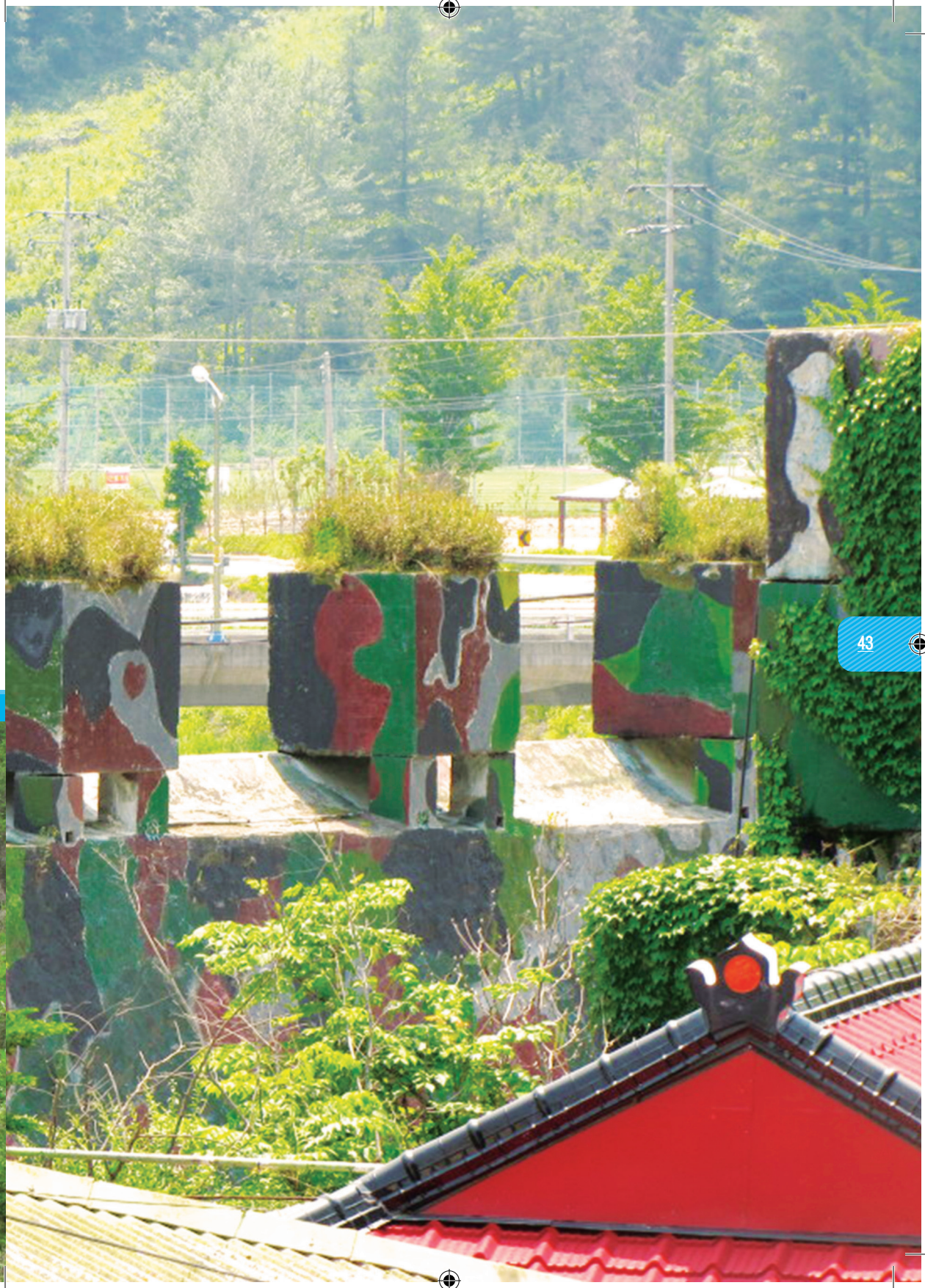
▼ 산양리 입구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손으로 내는 모내기를 하지 않고 점차 이앙기를 쓰게 되니까 농사짓는 사람 혼자 다 하는 편이다.

군인 상대로 장사하던 분들 중에서 아직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근로를 나가며 산양1교 다리 부근, 산양1리와 2리 경계인 산양교 앞에 있는 노인정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노인 분들이 65분 정도 된다. 6.25 전에는 이북 땅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두 세분 정도 된다.

산양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탱크저지선이 있다. 일종의 성벽이라 볼 수 있는 돌과 시멘트로 만든 것인데 떨어뜨리면 탱크 진입을 한 시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군부대가 있는 곳이면 이런 탱크 저지선을 흔히 볼 수 있다. 화천에도 곳곳에 탱크 저지선이 있고 산양리 입구에도 있다.

▼ 산양리 뿐 아니라 화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저지선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서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 어른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니니까 좋은 일이 있나보다 했던 산양리 아이들은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에 선다. 신포리가 38선 이북이 되면서 산양리도 이북 땅이 되어 5년여를 살게 된다.

▶ 산양리 토박이 김수기 어르신

▲ 김수기 어르신

김수기 어르신 : 일제시대 때 산양리는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이 살았지. 골짜기마다 4~50가구씩 살았고, 5일장도 컸고. 대마를 키워 베옷도 만들었고, 일제가 대마를 공출 해가는 공장도 있었어. 집집마다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키워서 동네에 큰 누에고치 창고도 있었고. 북한 인민군이 창설되고 소련군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했지. 북한에서 6.25를 남침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야. 미리부터 전쟁준비를 엄청나게 해댔거든. 해방 후에 공산당이 조직되면서 현물세를 내고 학교 제도도 6년제에서 5년제로 축소되었지.

산양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6.25가 나서 못 다니게 되었는데 북한 공부는 아주 쎄지. 졸업 때가 되면 국어, 산수 같은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치렀고, 그 밖의 과목은 질문과 답으로 시험을 봤어. 30개의 표를 주는데 1표에 3문제씩 적어놓고 문제를 풀게 했지. 시험문제 다 풀고 오디나무 밑에 가서 오디를 따먹기도 했어. 정신교육도 심하게 시켰는데 말도 함부로 못했고, 초등 2학년만 되면 소년단에 가입하는게 의무였어. 소년단에서 잘하면 모범표창과 함께 원산에 보내주기도 했지. 졸업식이 7월이었는데 이상하게 시험도

안보고 6월에 방학을 하더라구. 그러더니 학교집기를 치우고 군인 병원이 임시로 생겼지.

곧 인민군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총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고, 노동당원들이 춘천까지 점령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지. 우리 동네에도 김화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노동당 인민위원장들이 내린 결정이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도 고향을 떠날 수가 없어 피난을 가지 않고 2년을 산에 방공호를 파고 살면서 버텼어. 인민군이 나갔다가 후퇴하면서 미군기가 들어오고 아군들이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포탄이 계속 날아와서 대소변을 방공호에서 해결해야 했고, 밤에는 조명탄을 터뜨려 잠을 잘 수도 없었지.

파로호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가 계속 되고 있었고, 춘천과 홍천을 거쳐 원주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양구, 인제에서도 보름정도 있었는데 배급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러다가 다시 충북 괴산 증편이라는 곳까지 기차에 실려

▼ 파란만장하셨던 삶의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전부 이해하는 건 힘들지라도 놓치지는 않으려 열심히 기록 중

▲ 북쪽에 연고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으셔야 했던 지난 날 / ▶ 지금도 산양리에서 흔하게 볼 수있는 군인들

갔는데 배고픔을 면하려면 나무장사라도 해야 했어. 그렇게 2년 정도 살다가 수복된다는 소리에 춘천으로 와서는 지게 품을 팔았지. 미군 부대 앞에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뒤의 짐을 옮기는 지게꾼을 부르는데 이 골목 저 골목 가면 얼마 씩을 받았지. 그러다 고향인 산양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장갑차 부대로 꽉 차서 민간인은 찾아 볼 수도 없었어. 산양리에 와서 3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 군인들 상대로 장사를 시작했지. 처음에는 군인들이 많아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 요즘은 군인들이 부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부대 밖에서 물건 살 일이 없으니까 예전 같지는 않지.

그 시절 아쉬웠던 점은 북한 땅에서 살았다고 해서 요시찰(사상이나 보안 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 당국이나 경찰이 감시함)대상이었던거야. 장사를 할 때도 보안대에서 나오라고 해서는 이 물건 어디에서 떼 왔냐고 묻곤 했지. 누님이 북한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연락이 오가는지 감시했던 것인데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전엔 그렇게 살았어.

육군
PRIDE & TRUST
육군
PRIDE & TRUST

▲ 장사가 힘들어진 요즘이지만 그래도 웃음과 친절을 잊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맛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 화천 제일의 볶음우동 '경복원' 주인 이인길, 문역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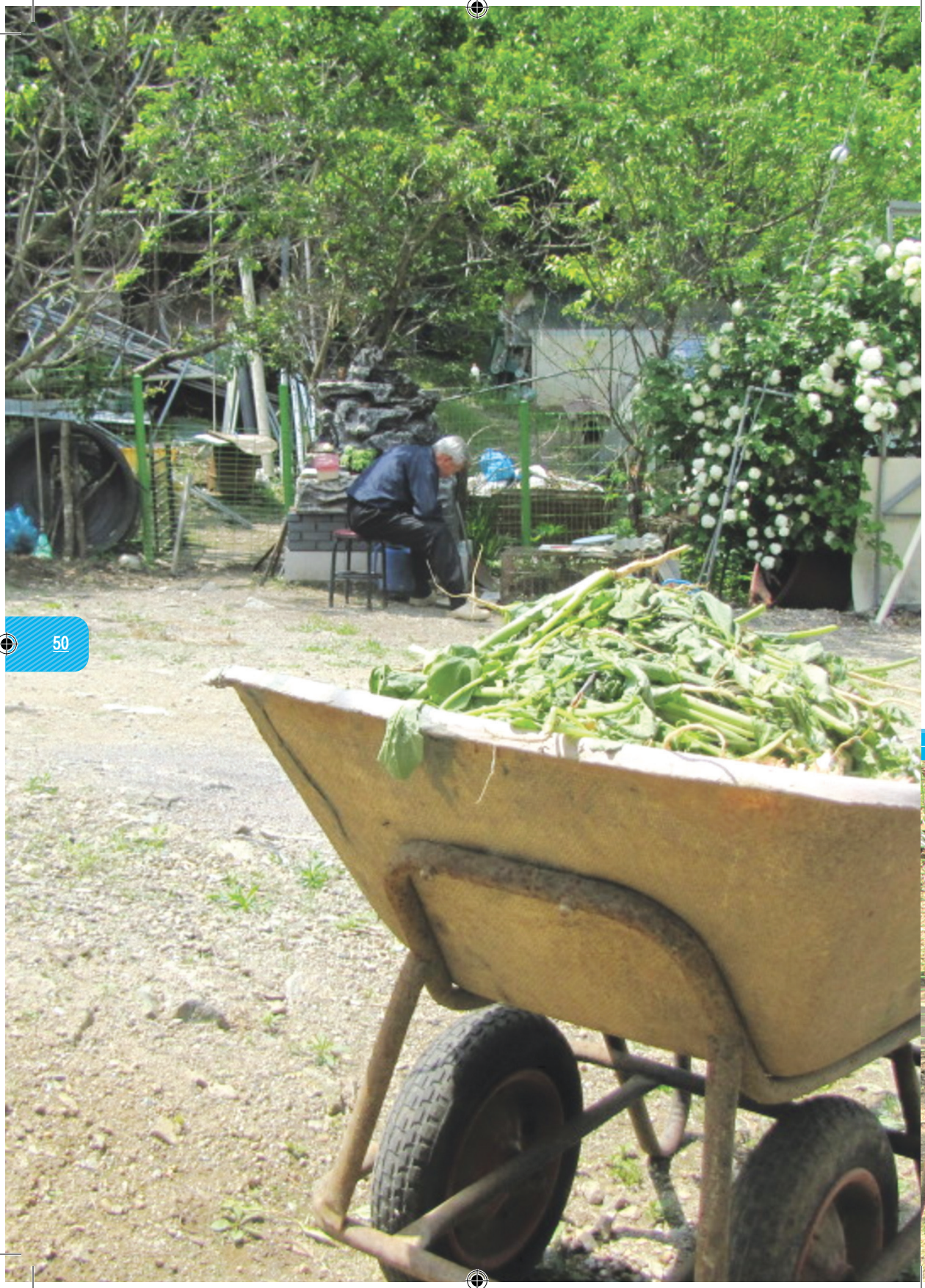
▲ 문역순 어르신

문역순 어르신 : 황무지나 다름없던 1968년 집을 지어서 이사왔는데 그때 산골짝마다 밭이고 공터였지. 남편이 여기서 군생활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 70년대 초반에는 유선사업을 했는데 화천에는 난시청지역이 많아서 TV가 잘 안나왔거든. 전파사 기사랑 10리 안에 높은 곳이라면 다 올라가 볼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지. 그때도 KBS는 잘 나올 때였는데 화천에서는 아주 간신히 보았어. 나중에 화악산에 안테나를 설치하면서 괜찮아졌지.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할 때 TV를 내놓으면 신작로 쪽으로 사람들이 30~40명 씩 모여서 보곤 했어.

이인길 어르신 : 식당은 75년도부터 했는데 ROTC들이 한꺼번에 2~30명씩 몰려와 전체 회식을 하면 마을이 들썩들썩할 정도였어. 70년에는 주방장이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짬뽕도 개발해서 인기를 끌었고, 화천에서 볶음우동을 제일 맛있게 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 요즘은 장사도 힘들어. 주말이면 일반 사병들이 배달도 시키고 그랬는데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경기가 완전히 없어졌지. 장사 안 되어서 집을 내놓았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나마 장군이 된 사람들 중에 여기서 소위 때 먹었던 자장면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재미지.

▲ 35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길

▼ 인터뷰 도중에도 볶음우동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신 손님들 때문에 분주하신 모습



▶ 선산을 지키는 광산 김씨 후손 김춘성, 장정숙 어르신

▲ 김춘성 어르신

김춘성 어르신 : 30년간 사진관을 했는데 그만둔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네. 옛날 흑백사진 시절에는 기념사진을 많이 찍어서 꽤 괜찮았지. 군인들의 흑백사진에는 전우애가 묻어났어. 명절 때 기념사진 찍으러 떼로 몰려 오기도 하고 가족들이 면회 와서 기념으로 찍기도 하고 3년 군복무 하고 제대할 때 사진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때도 오고 아무튼 많이들 왔었지. 사진을 찍고도 돈이 없어 못 찾아가는 일이 많아서 제대한 군인은 돈 안 받고 부쳐주기도 했지. 주민등록 사진도 찍었는데 한 장에 10원도 안 되었어. 예전에는 인물 곱게 나오게 할려고 조명등에 놓고 뾰족하게 깎은 연필로 일일히 보정을 했었지. 그때는 사진사라고 대우도 받았는데 칼라사진이 나오면서 걷어치웠어.

▼ 지난 날 많은 이들의 추억을 사진에 담아주셨듯이 현재는 어르신의 모든 것을 산양리라는 사진에 담고 계신 듯 하다.

▲ 일반 가정에서는 제사가 간소화되는 추세이지만 진심으로 조상을 기리는 마음 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어르신

▲ 장정숙 어르신

장정숙 어르신 : 광산 김씨 종손이라 선산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묘가 40기정도 되지. 음력 시월 초닷새에 시제를 지내는데 눈이 올 때가 많아서 음식 함지를 이고 지고 가다가 쏟고 미끄러지고 고생도 많았어. 어른들이 조심 안 했다고 야단치며 음식을 다시 해 가지고 올라가도록 했지. 돼지 한마리를 통째로 잡을 정도로 상서면이 떠들썩하도록 100여 명이 모였는데 지금은 20여 명 정도만 모이고, 산에서 시제를 안 지낸 지도 벌써 15년쯤 되었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젊은 사람들은 오기 힘들어져 노인들만 와서 지내니까 산이 아니라 집에서 시제를 지내. 시제 지낼 때는 동서들이 며칠씩 미리

▲ 오랫동안 무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과 함께 살림을 책임져 온 장독대들

와서 일을 했고, 집안 봉송으로 떡, 과일, 전을 마분지에 싸가지고 제사에 온 사람들에게 주어서 보냈지. 제주로는 막걸리를 담궜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도 못 오고 기름 만든 사람 못 오게 할 정도로 엄격했지.

지금 생각하면 일은 많았어도 정겨운 시절이었어. 시제음식도 문중 도지가 있어서 돈이 나왔는데 요즘은 선산에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문중에서 돈을 걷어서 지내고 있어.

옛날에는 아파트에 사는 군인가족 새댁들이랑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 다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뭐가 떨어지면 얻으러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고 적막하지.

▶ 40년 간 보따리 장사를 했던 박인순 어르신

▲ 박인순 어르신

박인순 어르신 : 직업군인이던 남편을 따라 산양리로 들어왔는데 군부대 지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어. 처음 왔을 때 대부분의 집들이 초가집이나 루핑지붕이었고 나중에 지붕개량으로 슬레이트지붕이 되었는데 루핑 위에다가 슬레이트를 얹은 것이었지. 비포장지역이라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대 후에 일자리를 잡지 못한 남편대신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는데 화천까지 버스타고 나가서 7시에 첫차로 춘천까지 갔지.

춘천에서는 돈 아끼려고 속초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가서 마른 오징어를 떼어다가 산양리의 군인들 집에 팔기 시작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역은 군인들 때문에 살고 있지.

그때는 교통이 불편해서 군인 가족들도 장사꾼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참기름, 들깨, 참깨를 사서 팔았는데 한 병씩 파는 게 아니라 한 종지씩 팔았지. 외상으로 줬다가 군인들 봉급 나올 때 수금하기도 했고, 다들 어려운 살림이라 딴 데로 이사 가면서 떼먹는 사람도 있었어.

춘천 약사리 고개(지금 춘천중앙시장)에서 그릇을 떼다가 팔기도 했고, 서울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떼어 오기도 했지. 보따리 장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더라구. 재고 물건이 남으니까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인데 남의 돈 빌려서 물건을 사오면 팔아도 오히려 빚만 남지. 그

런데도 장사를 하다보면 수중에 돈이 남았다고 펑펑 쓰기도 하고 남의 돈을 빌려서 물건 사러 가기도 하다 보니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 남편에게 나가서 돈 벌라고 바가지도 많이 긁었어.

화천에서 8시 막차를 놓치고 집까지 걸어온 적이 몇 번 있는데 보따리를 빼앗길까봐 꽉 잡고 앞만 보며 걸었지. 보따리를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굶게 되니까 용감해질 수 밖에 없었어. 보따리 장사를 하는 동안 살림하는 할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살아계실 때가 좋았어.

▼ 자식들을 위해 보따리를 꼭 쥐고 걸어오셔야했던 어르신의 뒷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럽지만 강한 어머니의 모습

442-4102
명찰
상패
시계
도장
군인백화점
phone
442-6138
군인백화점
TEL
442-6138
서울왕만두
신속배달 T.442-6274

군인용품전문점
T.442-6023
시계수리전문
중합할인마을
당배
군인용품
잡화
철물

▶ 군부대 옆에서 잡화상을 했던 이정민 어르신

▲ 이정민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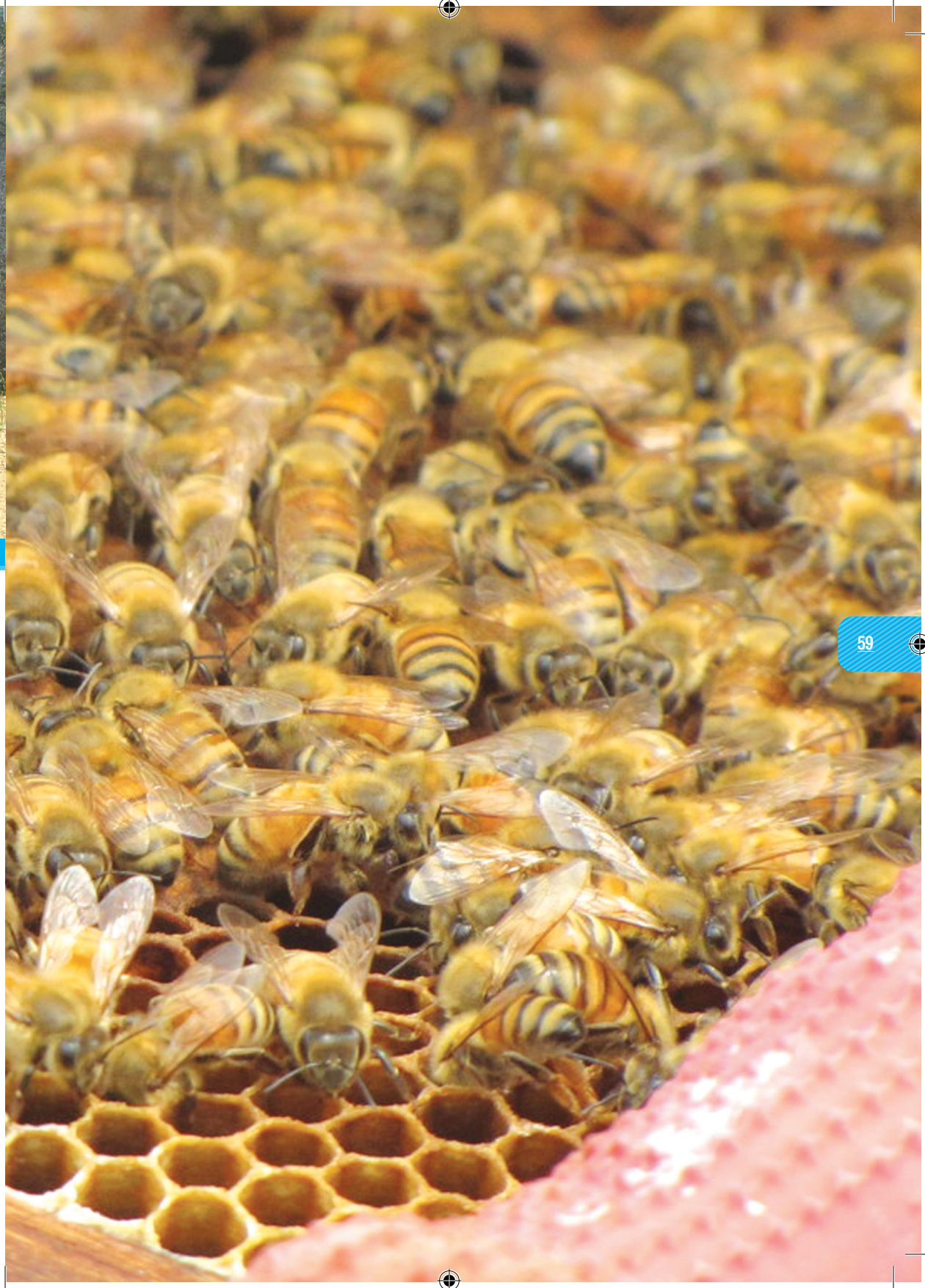
이정민 어르신 : 인제에서 살다가 전방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당시에는 군인들이 먼 데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대 주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샀어. 그러다보니 잡화상이 잘 될 수밖에 없었지. 찾는 물건이 없어도 화천까지 사러 나갈 수가 없으니 대신 구해다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차츰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런 물건들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갖추게 되면서 자리 잡게 되었지. 당시에 외상이 많았는데 더러는 안 갚는 사람도 있었고 떼이기도 했지만, 휴가 갔다 오면서 집에서 받은 용돈으로 외상값을 갚기도 했고 주임원사나 인사계 사람들이 대신 갚아주기도 했어.

◀ 화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군용잡화점들 / ▼ 군용잡화점 이후 새롭게 선택하신 양봉의 길

▲ 혹시 저 많은 벌들중 한마리쯤은 멀리 북쪽에서 날아와 섞여있는 녀석은 아닐까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포병대대 1호차 운전병 하던 젊은이가 심심하면 한 번씩 들르곤 했는데 배고프면 밥도 달래서 먹고 라면도 끓여 먹었지. 아들 같아서 반갑게 맞이하곤 했는데 제대한 지 십 몇 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오기도 하고, 고추 농사지었다고 매년 50근씩 보내주기도 했어. 또 대대장 차를 운전하던 군인하고도 친해져서 자주 놀러오곤 했는데 제대하고도 우리 아이들 결혼식에 찾아오기도 하고,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데리고 놀러오기도 하고 이게 군부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인정이지 싶어.

잡화상을 접고 양봉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산양리는 자연환경이 좋아 양봉을 하기에 좋고 나이 들어서도 쉬엄쉬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힘인 것 같아.



▶ 마현리 토박이 이병옥 어르신

이병옥 어르신 : 전쟁 때 어른들이 폭격 맞은 환자를 수레에 실어 사방거리에서 말고개까지 운반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길거리에 엎어져 죽은 사람 천지였지. 높은 산골짜기에 방공호를 파고 살기도 하고, 여름에는 더부살이로 아무데서나 자기도 했어. 중공군 후퇴 때 피를 질질 흘리며 싸맨 사람들, 방공호에 파편이 날아와서 정강이가 깨진 사람들 투성이었지. 그렇게 살다가 군인들이 원주까지 실어다 주어서 수용소로 옮겨 갔는데 배급받는 것은 냄새나는 쌀, 겉보리, 겉수수뿐이었어.

▼ 마현리의 모습. 대부분 낡고 비어 있는 집들이 많으며 토박이는 몇 분 안 된다.

아버지가 전쟁 때 열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가마니에 싸서 변두리에 땅 파기 좋은 곳에다가 묻었다가 나중에 이장을 했지.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홍천에 방을 얻어서 동생과 나를 거기다 두고는 광주리장사를 나섰어. 미역이나 생선을 떼다가 팔았는데 돈 대신 옥수수를 받아오면 이웃집 맷돌에다가 박박 갈아서 죽을 끓여 먹었어.

민통선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농사지으려고 마현리로 돌아와서는 화전을 했지. 화전은 나무를 싸그리 베고 깎은 후에 나무가 마르면 군데군데 불을 놓

▼ 지금은 옥수수가 맛있는 간식거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힘들었던 시절에는 끼니를 위한 소중한 곡식이었다고 한다.

는 것인데 그 전에는 소가 없으니 괭이로 파서 돌을 걸러내고 골을 파서 옥수수나 조를 심었어. 그때는 돼지가 옥수수나 조를 먹지 않았는데 전쟁 후라 화약 냄새 때문에 짐승이 안 온 것 같아.

새마을 운동이 벌어지면서 '새마을주택'을 짓기 시작했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지어야 하는 거야. 융자도 받고 정부 보조도 받아서 지은 주택은 겨울에는 추워서 스티로폼을 사다가 보온을 해야 했고, 여름에는 더워서 보수를 많이 해야 했지.

그 후에 '파포상회'라고 군인들 상대로 떡이랑 엿을 팔았는데 그때는 PX가 없어서 돈벌이가 꽤 되었지. 지금은 PX에서 어지간한 건 다 구할 수 있다 보니 가끔 상비약을 사러 나오는 군인들만 있어.

▼ 아직 남아 있는 새마을 주택의 흔적들 / ▶한때는 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파포상회

약
감초당약국지정
파포상회
파포상회
약
탁
8090-24
아이스크림
음료수
JINRO SOJU
하이트 맥주
크라운맥주
CROWN BEER

DMZ

화천군 에필로그

군부대 앞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는 게 다 그런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어르신들. 예전 같지 않은 지역 경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그분들을 뵙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 참여학생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3학년 / 이수완, 유아름　2학년 / 최미현, 이수진　1학년 / 길미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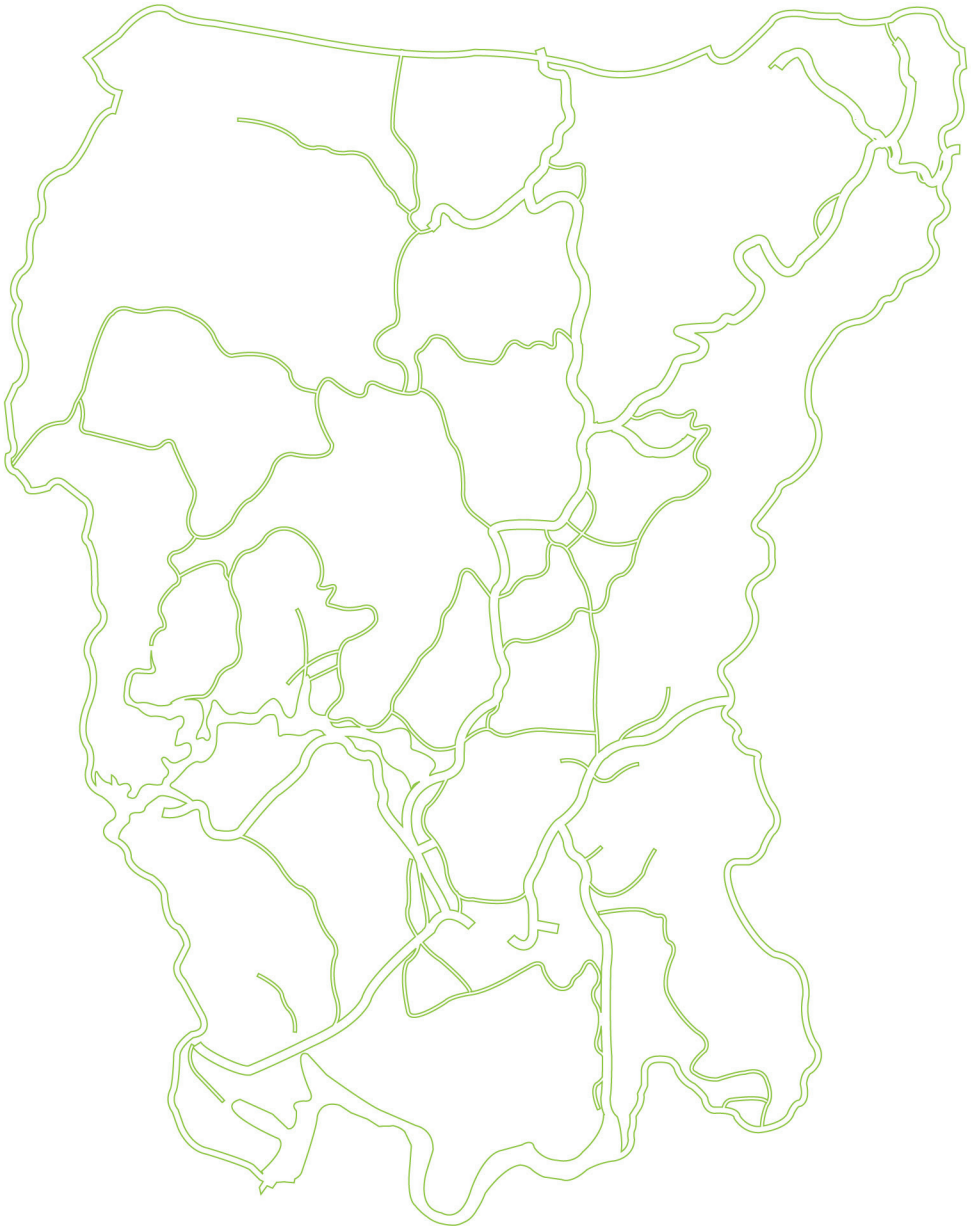
강원도 화천군 화남면 위라리 화천고등학교

2학년 / 신한솔, 이중진　1학년 / 길예지, 서화정, 이예람, 최은송

| 참여강사

함복희 강원대 인문대학 강사　강경섭 화천인터넷방송 대표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chapter 3. 양구

양구군

과거 · 현재 · 미래가 숨 쉬는 생명의 땅

해안에서 사람들 만난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해안의 탄생

해안은 우리나라 중동부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아담하고 고요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통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면지역으로 DMZ에 근접하고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해안(海安)'이라고 불렸던 이곳에는 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한 스님의 권유로 뱀과 상극인 돼지를 뜻하는 돼지 해(亥)자를 쓰고, 마을에 돼지를 키우게 되면서 평안을 찾게 되어 지금의 '해안(亥安)'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해안은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한데, 펀치볼은 6.25때 한 종군기자가 해안의 지형을 보고 펀치볼(화채그릇)을 닮았다고 한데서 유래한 별칭이다. 해안분지의 움푹한 지형은 운석충돌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설과 화강암과 변성퇴적암의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차별침식에 의한 분지형성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해안은 대암산(1304m) · 대우산(1179m) · 도솔산(1148m) · 가칠봉(1242m)등이 둘러싸고 있으며, 거의 완전한 모양의 원을 이룬다. 동서로 8.5㎞에 남북으로 7㎞, 평균 고도 400m 규모이다.

해안면은 1895년 지방관제 개편 때 양구군의 9개 면 중 하나로 편성되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통치하에 놓였으며, 1945년 해방직후 공산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6.25전쟁 때는 군사 전략상의 요지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지역이다.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유엔군의 손으로 들어왔다. 그 뒤 1954년 행정권이 이양되었고, 11월에는 해안면이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수복된 후 해안에는 국가의 난민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입주가 시작되었다.

▲ 펀치볼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을지전망대. 하지만 냉전의 현실에 대한 긴장감은 피할 수 없다.

1956년 4월 1차 주민입주로 160세대 965명이 들어와 땅을 개간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1972년에는 제2차 주민입주가 실시되어 100세대 476명이 추가로 해안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다음해인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안면이 양구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2월에는 드디어 동면 해안출장소가 해안면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해안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해안 곳곳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6.25전쟁의 상흔이 숨죽이고 있다.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 일대는 펀치볼전투, 도솔산전투, 가칠봉전투 등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이다. 특히 냉전의 흔적인 DMZ를 비롯해 제4땅굴, 을지전망대가 있어 평화로운 마을 풍경 속에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원래 해안이 고향인 원주민들은 물론 6.25전쟁이후 국가의 계획입주 때에 각지에서 몰려 든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다시 태어난 곳으로 주민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유입되었고, 이 때문에 해안은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또 행정구역상으로는 양구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인제, 양구에 속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역적 경계가 없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해안은 한여름에도 고지 특유의 한랭한 기후가 유지되어 배추, 무 등 고랭지 농업에 많은 주민이 종사하였다. 또 계속되는 농지 개척으로 농업경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해안의 농업발달과 인구증가에도 지리적 특성상으로 타 도시와의 거리감,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해 농사를 짓는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은 외지로 유학하거나 타지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양질의 농산물 재배를 추구하는 친환경 농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자연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주민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안은 DMZ 근접지역으로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어 아직도 풍부한 생태자원이 보존되고 있다. 바로 생태계의 보고인 '용늪'이 대암산 정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DMZ 자생식물원' 건립이 이루어져 생태자원의 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처럼 해안은 DMZ와 공존하는 지역으로 남북한 서로의 도발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미완의 평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펀치볼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다.

선사인들의 안식처 해안

해안은 '亥安'으로 불리기 이전에는 '海安'으로 불렸다. 그렇다면 왜 '海安'으로 불렸을까? 그 답은 해안의 해발 600m에서 발견된다는 조개껍데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조개껍데기는 민물 조개껍데기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것으로 과거에 해안지역의 해발 600m지역이 민물조개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해안에는 큰 강이나 호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서 과거 해안이 '海安'으로 불렸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 옛날, 해안의 바다 해(海)는 이곳이 바다와 같은 호수 또는 강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자연환경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살기 유리했던 곳이라는 것이 해안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확인된다.

1986년, 해안 만대리에 잠들어 있던 선사인들이 깨어났다. 1986년 초, 김동구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해안중학교로 발령을 통보받고 근무를 하던 중 동네 어느 집 마당에서 꼬마가 돌로 만든 창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꼬마에게 그 돌

을 발견한 곳을 물었고 교사는 그 아이가 알려준 곳으로 가 주변을 살폈는데, 거기에서 민무늬토기 조각과 석기를 갈던 숫돌 조각 등 선사시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해안 만대리에 잠들어 있던 선사인들을 깨운 순간이었다.

그 후 김동구 교사는 해안중학교 학생 2명과 '해안중학교 발굴단'을 꾸려 유물이 많이 나온 밭 1,000여 평에 대한 표본발굴을 시작했다. 1년 반에 걸친 발굴조사의 성과로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 수많은 석기와 토기들이 라면상자로 2상자 분량이 될 정도였다. 해안중학교 발굴단에 의해 조사된 유물들이 학교에 전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해안중학교는 문화공보부에 의해 문화재보호학교로 지정되었다.

▲ 선사유적지 표시판

▼ 해안면 선사유적지

이 일로 인해 해안의 선사유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1987년부터는 해안 만대리 유적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강원일보가 기획한 민통선 북방지역 생태문화계 조사단의 조사에서는 고인돌 20기가 추가로 발견되어 학자들의 이목을 한 번 더 집중시켰다. 해안 곳곳에는 이곳을 안식처로 삼았던 선사인들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선사인들은 이곳을 어떻게 찾아 왔을까? 그들은 소양강 물줄기를 따라 올라오며 생활하다가 결국 그 끝인 '인북천'에 닿아 여기에서 해안의 '당물골'까지 올라오게 되었을 것이다. 해안은 선사인들의 길고 긴 여정에 아늑한 둥지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뒤로는 산,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이 곳. 선사인들이 살기에 더할 나위 없었을 곳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를 거치는 동안 세대가 계속된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해안은 아주 오래 전부터 '바다(海)를 담은 안식처(安)'로 사람과 자연에게 생명의 땅이었던 것이다.

위기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해안은 그 규모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온전히 독립된 지역이 되지 못했다. 인제, 양구에 소속되었다가 분리되기를 반복하면서 지역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을 특별히 남기지 못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해방이후, 6 · 25전쟁 때에도 각 세력 간의 충돌이 이루어져 많은 상처가 남겨지게 되었다. 긴 세월동안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사람과 자연 모두 소멸되고 있었다. 이러한 해안에 1956년 새로이 마을이 건설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해안의 구성원은 원래 고향이 해안인 사람, 전쟁 후 계획입주에 의해 들어온 사람, 특성화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로 각자의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모여들게 되었다.

해안이 다시 사람이 찾는 땅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안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토박이들은 세월이 흐르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중에 문하승 어르신과 박진묵 어르신을 만나 해안의 역사를 되새겨 보았다.

▲ 박진묵 어르신 (좌), 문하승 어르신 (우)

▶ 언제부터 해안에 살게 되셨나요?

문하승 어르신 : 나는 해안 이현리에서 나서 왜정 때 소학교를 다녔어. 10살 먹어서 소학교에 들어가서 6학년 때 해방이 됐지. 해방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지. 그래서 소나무가 모두 하옜어. 인공 때도 여기서 살았지.

▲ 문하승 어르신

▶ **그럼 전쟁이 났을 때는 어디로 피난을 가셨나요?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문하승 어르신 : 1.4후퇴 때 안사람이랑 어머님이랑 서혜리로 피난을 갔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철모 쓰고 미제 작업복 입고 총을 멘 사람들이 있더라고. 미 해병대가 여기 쭉 서라고 했어. 인민군들이 선전하기를 남한에 가면 양놈들이 전기찜질하고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었거든. 서라고 해서 섰는데 뭘 들이대더라고. 그래서 저게 전기찜질인가 했더니 뭐가 번쩍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카메라였지.

▶ **언제 어떻게 다시 들어오게 되셨나요?**

문하승 어르신 : 피난을 나가 원주수용소에 있다가 입대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의가사제대를 했지. 수복되고 양구 동면에서 교육청 면주재관으로 있다가 1년이 조금 넘으니 해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사표도 안내고 1956년 입주할 때 들어왔어.

▶ **할아버지는 해안에 언제부터 살게 되셨나요?**

박진묵 어르신 : 나는 1956년 19살 가을에 들어왔어. 아버지는 1차 160세대 입주 때 여주에서 살다가 먼저 들어오셨고. 그리고 1972년에 오유2리, 만대리에 2차로 100세대를 입주시켰지. 나는 밤에 몰래 들어와서 출입증을 내 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출입증을 내는데도 돈을 걷었어요. 출입증 한 장당 얼마씩 걷어서 군인들에게 줘야 했지. 그러다가 출입증이 95년쯤 없어졌을게야.

▶ **들어오셨을 때 해안은 어땠나요?**

박진묵 어르신 : 그때는 다 천막치고 살았어. 아버지는 집짓기 이전에 들어오시고 나는 집 짓고 들어왔는데,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두 집씩 살게 했지. 지금도 동막동, 오유리에 남아있어. 김영철씬가 그 집이 1호, 나는 36호에서 살았지. 한 집을 반으로 나누어 살았으니 실제 집은 80채 정도가 있었던 거지.

▼ 지금도 일부 오래된 주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난날의 흔적들

6시 이후에는 불도 못 켜게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했어. 군인들이 집을 다 지어 줬거든. 우리가 그해 가을에 들어왔는데 입주를 해서 보니 사방은 다 숲이지, 벼는 서리를 맞아서 먹을 게 없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천주교에서 옥수수가루를 배급해 줘서 먹었지. 천주교 없었으면 여기 사람들 못살았어. 천주교가 그때 같이 입주해서 지금도 해안중학교 앞에 있지.

▶ 그럼 여기는 마을이 생기고 나서 군대의 통제를 받고 그랬나요?

박진묵 어르신 : 오유리에 있던 수색중대에서 7시만 넘으면 순찰을 돌아요. 우리도 돌아다니면 끌려가고 했지. 그래서 제사도 초저녁에 지냈어요. 지금도 그때 버릇이 되가지고 제사를 일찍 지내지.

문하승 어르신 : 그때는 뭐 현리는 양반네였어. 우리 동막골은 어땠냐면 길옆에 옥수수 섶을 지어놓고 빵 둘러서서 보초를 서요. 동막동을 감싸고. 그래서 만날 소변 보러도 못나왔어요.

▼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집중

▲ 박진묵 어르신

박진묵 어르신 :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화장실이 지금처럼 집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몇 집이 어울려서 뒤에다가 공동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봐야하는데, 가다가 붙들려가지고 군대 가서 겨울에 도라무통 굴리고 그랬지. 그게 기압을 받는 거야. 그 당시에는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눈은 민간인들이 반별로 다 치웠어. 아주 뭐 말도 못했지 군인행패들이. 그때는 여기도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사람들 물고기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거야.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군인들 항모(반합)에 끓여먹고 그랬어. 지금은 그만큼 고기가 없어.

▶ 해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사셨나요?

박진묵 어르신 : 예전엔 고물장사(쇠)를 많이 했어. 동막동 진고개를 넘어서 판초우의를 많이 가져가서 비 맞지 않게 우의를 나뭇가지에 쳐놓고 두릅나무

▲ 힘드셨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간간히 웃음나는 일화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

와 싸리나무를 준비했지. 두릅나무를 때서 밥을 해 먹으면 연기가 안 나서 운해 밑에서 밥을 해 먹고 2~3일 탄피를 캐서 팔아요. 여기서 팔면 값이 없어서 밤에 서화로 가서 팔았지. 그걸로 애들 키우고 돈 벌고 그랬어.

문하승 어르신 : 우리는 그냥 논농사, 밭농사 지으면서 살았지 뭐. 조금씩 지으면서. 여기는 다 숲이었어.

우리가 만난 문하승 어르신은 1938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해안에서 태어나셨다. 그 후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바로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지배를 받으며 사셨다. 6.25전쟁 때에는 해안에서 전투가 치열해 이곳을 떠나 타지에 있다가 고향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해안으로 들어오셨다. 또 박진묵 할아버지는 전후 계획입주 때 들어와서 현재까지 살고 계신다. 전쟁이 끝난 후 이곳은 먹고 살 것도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지만, 고향을 사랑하는 토박이들과 계획입주에 의해 들어와 의욕적으로 토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

▲ 오래된 사진 속에서 바라본 옛 해안면의 모습들. 지금의 해안면을 일구신 어르신들의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이병철 어르신

해안에서 만난 영신약방 이병철 어르신은 전쟁 이후에 황폐한 땅, 긴장과 간섭이 남아있는 해안에 들어와 아픈 사람들을 보듬으며 살기 시작하셨다.

▶ 양구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이병철 어르신 : 나는 52년 전 20대 후반에 경기도에서 해안으로 왔어. 여기 약국이 없다고 해서 약국 하려고 아내랑 둘이 들어왔지. 처음에 여기는 군인들의 통제가 심해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보안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갔다 온다고 신고를 해야 했어. 출입증도 있어야 했고.

▶ 아 그럼, 장사하려고 들어오셨나요? 이곳에서 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병철 어르신 : 형이 인제에서 약사를 했는데, 나한테도 약종사 시험을 보라고 권했거든. 그래서 강원도 약종사 시험을 붙은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한 거지.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으니 그땐 그래도 살만했지 뭐. 나

갔다 들어왔다 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현리와 오유리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긴 사람들이 다 개간한 거야.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 그때도 고랭지 농사를 많이 지었고.

▶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나요?

이병철 어르신 : 여기 들어왔을 때는 뭐 다 이주해서 터 잡고 산 사람들이 많았지. 해안의 30%가 인제사람이고. 인제가 논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논이 많다고 하니까 여기로 들어왔지. 처음에는 인제군 서화면 출장소였어. 여기 토박이들도 있었지. 그래서 여기 토박이들하고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하고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 다 논농사랑 밭농사 짓고 살았지 뭐. 그래도 점점 발전해서 사람도 많아지고.

▶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도 다 여기서 자라셨나요?

이병철 어르신 : 아니야. 여기는 초등학교 밖에 없고 중학교가 없어서 다 외지인 춘천, 서화중학교 이런데 나가서 공부시키고 그랬지. 중학교가 생기고 나서는 여기에서 다녔지만.

▲ 이병철 어르신의 오랜 삶의 터전인 약방

▶ **해안중학교 세우는데 여기 주민들이랑 함께 힘을 쓰셨다면서요?**

이병철 어르신 : 아. 여기 내가 공화당 책임자로 20년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도에 가서 중학교 세워달라고 건의하고 그랬어요. 학교가 없으니까 주민들이랑 회의도 하고, 도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졌어. 단결이 잘 되었지.

우리가 만나 본 이병철 어르신은 해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 타지에서 들어와 터를 잡았던 분이셨다. 해안에 새로이 마을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게, 약국 등의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당시 해안에는 모든 시설이 부족해 이병철 어르신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해안의 교육시설을 늘리는 데도 힘을 써 나갔다. 학교가 없어 외지에 나가 교육받는 학생들을 해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해안중학교가 건립되었고, 현재까지 멀리 나가서 교육받기 힘든 해안 자녀들의 배움터가 되고 있다.

▼ 지난 날 이병철 어르신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볼 수 없었을 광경 . 해안중 개교식 (1981년 3월4일)

자연을 기르는 해안의 농사이야기

▲ 해안면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농경지

해안의 주민들은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950년대 다른 지역에서 해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대부분은 해안이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한다. 해안하면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데 배추, 무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감자, 쌀 등이 양질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배추를 대신해 인삼재배가 이루어지며 각광을 받고 있다. 또 해안에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포도, 수박, 메론 등 높은 당도를 경쟁력으로 하는 과일도 대량 재배되고 있다.

해발 600~700m에 이르면 한랭한 기후가 펼쳐지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재배가 잘 되고, 평야는 일교차가 커서 쌀, 과일 등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안의 농업환경은 농지와 농업인구를 점점 더 증가시켜 나가고 있으며, 해안 지역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품종의 재배도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다. 해안 주민들의 개척정신과 생명력은 주민들의 생활에 여유와 만족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으며, 자연과 생명을 배려하는 농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조규학 어르신

친환경농업으로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건강한 땅을 물려주려는 친환경농업법인의 대표 조규학 어르신을 만나 보았다.

▶ 예전에는 해안에서 어떤 농사를 주로 지었나요?

조규학 어르신 : 해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니었고, 요 아래 논들이 있는 부분만 개간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었고 수확량도 적었지요. 밭은 일부 조금만 하고. 그러다가 고랭지 채소 이런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위로 자꾸 올라가며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야. 저 산 밑에 제일 높은 밭들이 해발 7~800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앉은 곳이 해발 400미터가 조금 넘을 거에요. 고랭지채소니까 시원한 걸 따라서 자꾸 올라간 상태예요. 분지 기후 특성이 뜨거울 때는 무척 뜨겁고, 추울 때는 무척 춥고 그래요. 여름에는 30도가 넘어갈 때가 많아서 배추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배추는 산 밑으로는 심지 않아요. 무는 상품성이 좋아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도 해안 무를 최고로 쳐 주지요.

처음에 논농사만 할 때는 우리나라에 농약도 없었고 기계도 없어서 전부 손으로 모를 심었지요. 예전에는 6월 초부터 하지까지 모를 심었어요. 비닐이 나오면서 못자리에 비닐을 씌워서 하니까 5월 25일경 선모를 하지요. 기후가 따뜻해지고 기계화로 날짜가 당겨진 거지.

▶ 이 지역의 농사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조규학 어르신 : 지금도 해안 분들은 4월 1일에 '도치성제' 라고 지내요. 그게 도솔산 산신을 모시니까 도치성제라고 부르지 않았나 싶어요. 도치성제를 지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는 비료도 없고 논에다 거름을 줘야 벼가 되니까 '갈' 이라는 걸 끊어서 거름을 해 넣었어요. '갈' 이 뭐냐면 참나무 지금 많잖아요. 참나무를 옛날에는 화목을 해 때니까, 한해가 지나면 새순이 올라와요. 1년생하고 새순하고 잘라다가 논에다 집어넣는 걸 '갈' 이라고 불렀어요. 농민들이 그 당시 그걸 '갈꺾기' 한다고 그랬어요. 갈을 논에다 꺾어 넣고, 그러니까 갈잎이 커야 넣을 수 있으니까. 모를 일찍 심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6월이 되어야 모를 심지. 그 당시엔 부지런한 사람이 갈을 꺾으면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꺾을게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을에 대표되는 분들이 치성을 지내고 언제부터 갈을 꺾자 하고 갈꺾기 명령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갈꺾기 제를 올리고 마을사람 모두가 날을 받아서 '지금부터 갈을 꺾자' 라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게 도치성제야. 도치성제를 지낼 때는 도솔산 산신이 여신이라 수소를 잡아서 제를 지내고 여자들의 참여를 제한했어요. 지금은 토속신앙을 복원하여 문화원 해안분원에서 지내고 있지요. 우리 농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치성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거기서 풍년을 기원하고, 갈 꺾는 질서도 세우고 그랬던 풍습이 있는 거지.

▶ 친환경 농업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조규학 어르신 : '대암산 유기영농조합법인' 이란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우리 회원은 18명이에요. 친환경 농사다 하면 대개 사람들이 약을 안친 건강한 먹거리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은 '자연보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친환경 농사의 제일 첫 구절이 지속가능한 토지를 보전하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에요.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보전하려고 하니까 비료도 치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 거름을 쳐서 땅을 살려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료도 줄이고 농약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건데 문제는 농사가 힘들다는 거야. 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전부 유기농이었어요. 농약도 없었고, 비료도 없었고 그래도 다 됐어. 근데 지금은 약을 안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땅을 살리려면 몇 년씩 걸려야 되는 거야.

여기 농장 주변도 지저분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초제를 안치니까. 우리는 또 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사 1,200평을 지었어요. 거름을 사다만 쓰기도 힘들고, 정부에서 친환경농업하는데 일반 축사에서 퇴비를 못갖다 쓰게 해요. 우리 같은 단체는 항생제가 들어간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는 거름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서 써요. 유기인증을 받았는데, 볏집도 우리가 생산한 걸로 쓰죠. 소는 인증 받기가 더 힘들어. 소똥까지 받아다가 항생제가 섞였나 안 섞였나를 분석해서 인증 받는 거예요. 우리 소는 전부 이런 절차를 받아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어요. 앞으로 소를 350마리쯤 더 기를 계획인데, 아무래도 소 값이 비싸서 자연번식을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 3~4년 지나면 그 거름을 우리가 다 쓰게 되는 거지. 지금 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하게 되면 소고기가 무항생제 소고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학생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나 환경문제 등

▼ 바라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조금이라도 토지를 정화시켜서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죠. 예를 들어 앞으로 지구가 100년 수명인데 150년까지 늘리려면 농사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요. 힘들어도 친환경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해안은 친환경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요.

▶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시나요?

조규학 어르신 : 여름에는 채소를 해요, 양배추, 적양배추, 브로컬리, 양상추, 감자. 노지에 여름채소 심는 게 그거예요. 작년에는 날씨가 나빠서 수확이 좋지 않았어요. 금년엔 날씨가 작년보다 더 나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오염시킨 것을 되돌려 받는 거니까. 우리도 농약을 사용해요. 친환경에서 사용하는 건데 효과도 떨어지고 값은 비싸고 그래서 친환경이 힘들다고 하는거죠. 소비자단체나 도시분들이 방문해서 많이 물어요. 이런 걸 쳐도 벌레가 죽으면 그건 약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물고기를 잡을 때를 비유해서 설명하죠, 내가 20~40대 때는 약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청산가리, 농약(지오랙스)을 치면 고기가 죽어요. 이렇게 잡아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럼 예전 사람들은 고기를 어떻게 잡았냐면 산에 가면 가래나무 뿌리를 캐서 빻아다가 뿌리면 고기가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천렵했지요. 그러면 청산가리로 잡은 거, 농약으로 잡은 거, 나무뿌리로 잡은 거 중에 어떤 게 사람한테 제일 좋겠어요? 그래도 나무뿌리로 잡은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우리가 쓰는 것은 천연추출물에 의해서 벌레를 질식시켜서 방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저기 캐는 곰취도 유기인증을 받은 거예요. 비료도 하나 안치고. 내년에 다시 심으려고 캐는 거예요. 곰취는 심은지 3년 후에 다시 캐지 않으면 뿌

리가 다 썩어버려요. 다시 분갈이를 해 줘야 성장이 되요.

'산간벽지의 오염되지 않는 땅 해안에서 기르는 과채라면 모두 유기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르신과 해안 주민들이 말하는 유기농은 다른 것이었다. 사람에게 좋은 농산물뿐만이 아닌 자연에게도 좋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농업경영정신이었다.

▲ 친환경 농업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는 모습

해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 재배로 이익을 얻고 있다. 그 농산물들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은 질을 자랑한다고 한다. 또 앞으로도 해안은 좋은 땅, 좋은 자연환경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농업은 물론 그들이 자연에서 받은 그대로를 자연과 나누는 농업을 시도하고 있다. 해안 주민들은 사람의 몸에 좋은 유기농 과채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었다. 해안의 자연과 사람이 오래도록 공생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연을 기르고 있다.

볼안에서 어우러진 사람들

▲ 1956년 마을복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해안재건비

1956년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길 것만 같았던 땅, 해안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들기 시작했다. 전쟁 후 수복 된 해안은 국가에서는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고, 난민의 보호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민통선 북방지역인 해안에 주민 입주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당시 입주자들은 해안과 맞닿은 인제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해안 가까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입주계획 소식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금도 해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고향을 말해주 듯 곳곳에 김해식당, 남원식당, 서울상회, 속초상회 등 전국의 지명을 사용한 가게들이 많이 남아있다. 입주자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황무지가 된 해안에서 새롭게 터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입주 후 그들의 해안 적응은 생각만큼 순탄하지 못했다. 입주 무렵 고향땅을 다시 찾아 온 해안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새 입주자에게 빼앗긴 신세가 되었고, 새로운 입주자들과 원주민들의 토지분쟁은 서로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대립과 타협과정을 반복하면서 조화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해안지역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지역문화를 만들어갔다. 행정구역상 양구에 속해 있는 해안면이지만, 입주당시에는 인제군에 편입되어 있었고 인제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다보니 주민들은 지금도 인제지역과의 교류가 자연스럽다. 해안에는 인제, 양구에서 모두 시내버스가 들어와 사람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해안주민들은 양구와 인제의 지역에 대한 경계의식 없이 자유롭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 이곳에는 여러 지역의 상인들이 오고간다. 내륙의 산간벽지인 이곳에서 다른 먼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렵다보니 자연스럽게 큰 도시의 상인들이 이들을 위해 이동상점을 열어 주고 있다. 산속에 떨어져 있는 섬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가 스며들고 있었다. 또 해안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글로벌인들도 점점 늘고 있다. 바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대한민국의 대도시가 아닌 이곳 해안에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해안의 한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노동자 레씨 가족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언니와 형부, 처제인 가족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생계를 위해

▼ 태국인 노동자 레씨 가족과의 만남. 막연히 걱정했던 낯설음보다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타지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해안과 해안사람들이 너무 정겹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외국인노동자들도 해안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활에 녹아들어 가고 있었다.

이곳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부식차(외국인들이 자국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재료를 파는 차)도 가끔 등장해 그들의 문화를 잊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해안에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해안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어렵지 않게 어울려 살고 있었다.

6.25전쟁 후 해안에는 계획 입주자, 원주민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다. 희망의 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처럼 사람들의 갈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얽히면서 조화되고 있었다.

해안에는 지금도 농사, 새로운 정착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특화된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 온 노동자의 수도 점차 늘면서 각기 다른 문화를 하나의 해안 문화로 만들어 가고 있다.

생명의 땅으로 변화하던 계획입주 때에 원주민과 이주민의 융합에서 현재 해안지역민들과 이주민 · 외국인들과의 어울림까지,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펀치볼속에서 조화롭게 버무려져 그들만의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양구군 에필로그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는 DMZ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안에도 지뢰지역이 많지만 직접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DMZ투어에 참가해서 들었던 '튀는 옷을 입으면 총맞아 죽을 수도 있다' 는 말에,
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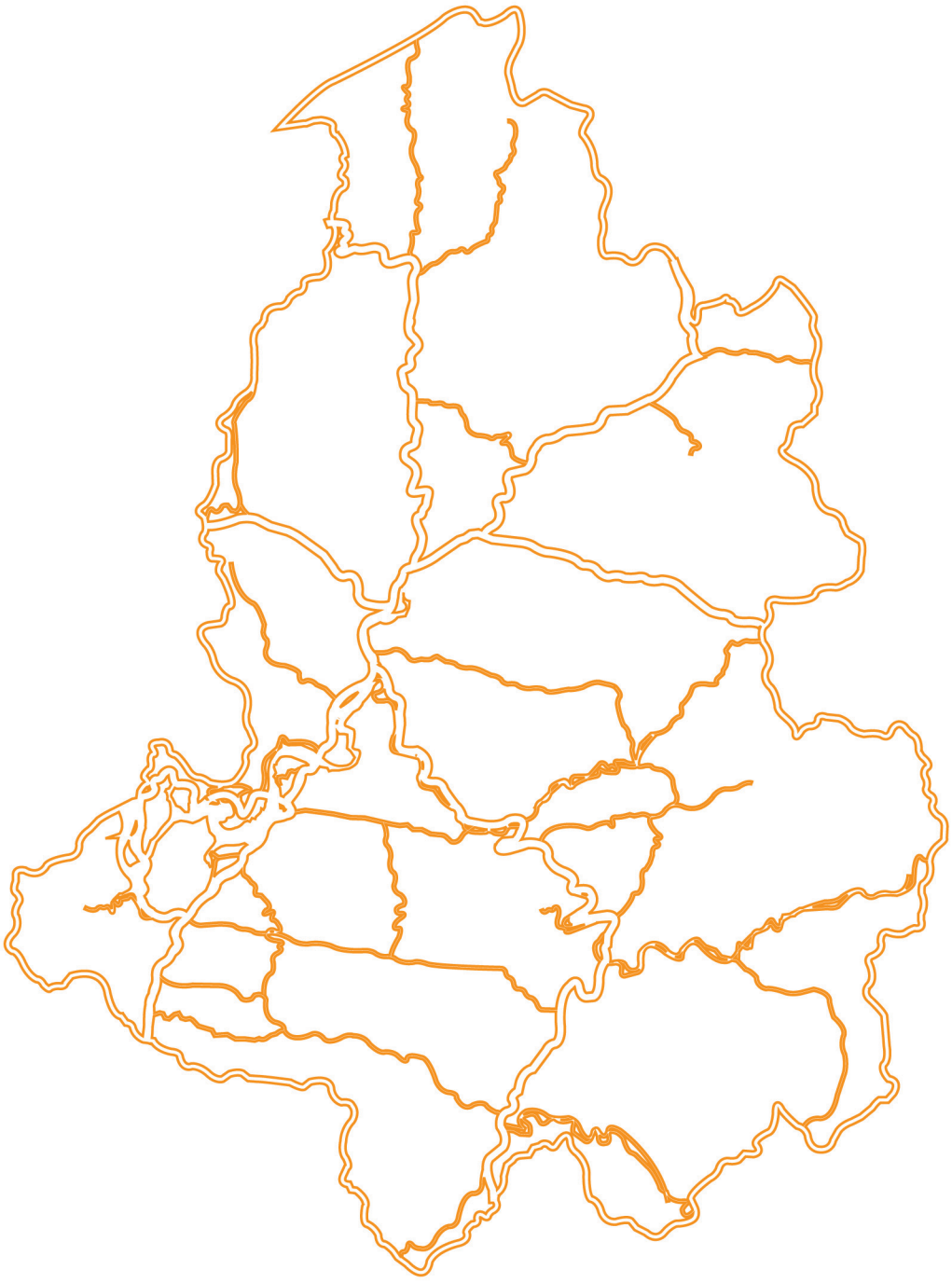
| 참여학생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해안중학교

3학년 / 강예지, 박선진, 백혜린, 김은아, 송예지
2학년 / 배하은, 이다운, 이영수, 장한비

| 참여강사

이태환 해안중 교사　　김찬수 양구향토사연구회장
김수연 양구향토사연구회원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chapter 4. 인제

전쟁과 분단의 역사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일의 염원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치열한 과거

우리의 과거는 전쟁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곧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지역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통일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대상 지역인 서화면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지는 중

▲ 김팔용 어르신댁에 방문하기 바로 직전. 긴장감에 잠시 발걸음을 멈칫

▶ 서화면 천도리 김팔용 어르신

▲ 김팔용 어르신

김팔용 어르신 :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소련군이 한 번인가 두 번 이곳에 나왔어요. 당시에 이곳은 공산주의라 힘들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알로 세다시피 해서 다 가져가니까. 또 밤에는 회의하고 낮에는 일하고, 회의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자아비판도 해야 하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죠. 그렇게 살다가 6. 25가 났어요. 여기서는 전쟁을 잘 몰랐어요. 6월 25일 날도 조용했거든. 인민군이 내려오고 아군이 쫓겨 가고, 한참 싸울 때야 알았죠.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막 붙들어 가고 했어요. 공습이 자주 있어서 가전리 들어가는 골목에는 인민군 시체가 즐비했고.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조금만 잘못하면 사상이 나쁘다고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큰일 났던 때였지. 공출을 해도 뭐 가져갈 것이 없으니 소를 가져갔

지. 그때만 해도 차가 흔하지 않으니 짐을 실을 수 있는 소를 끌고 간 거야. 중국군도 들어왔는데 요강 같은데 뭘 담아먹고 아주 지저분해요. 그때 인민군이 세균을 뿌렸다는 말이 있었는데 열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서 시체를 처치하기도 힘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은 미군이 불을 질렀어요. 나도 열병에 걸렸는데 앓으면서 인민군 욕을 많이 했대요.

피난을 가면 북한으로 가야해서(이곳은 해방 뒤에 북쪽에 편입된 지역이라) 감자구덩이 판 데서 숨어살다가 미군과 원주에 있는 수용소로 갔지. 처음에는 미군부대에서 배급을 받다가 미싱을 배워서 양복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원주에 살다가 다시 와보니 이웃도 모르는 사람들뿐이었지.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해봐야 나까지 넷이었어. 지금은 다 죽고 심병관과 나 밖에 없어요. 구호주택이라고 정부에서 짓는 집도 있고, 개인이 지은 집도 있었는데 나는 7만원 주고 집을 사서 군인들 양복수선을 해서 먹고 살았어. 그래도 기술이 있어서 살 수 있었지. 지금은 애들도 다 커서 모두 외지에 나가 있고 농

▼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우면서도 숙연해지는 이야기들

사를 지으며 살고 있으니 비무장지대라고 해도 크게 생활이 불편한 것은 없어요.

▲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어르신

어릴 때 소꿉장난하던 친구도 하나 북으로 갔는데, 내가 함경남도 있을 때 평안북도 철산광산에 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었지. 철산광산은 갯벌에서 뭘 판다는데, 엄청 힘든 모양이었어. 난 기술학교도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 친구는 오죽 힘들었을까 싶지. 혹시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통일될 때까지 기다려 꼭 만나고 싶은 친구인데 통일이 빨리 될 것 같지가 않네...

▼ 인터뷰 후 기념사진 / ▶ 배웅하실땐 마치 손자, 손녀들을 보내듯이 아쉬워 하시며 쉽사리 고개를 돌리지 못하셨다.

북쪽에 있는 내 친구 **이기운**에게...

기운아, 너 **잘 있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지금 **서화리**야. 만나려면 **통일**이 돼야 만나지,

언제든지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

꼭 다시 **만나보자**...

– 김팔용 어르신이 북에 계신 친구분께 전하는 메시지 –

▶ 서화면 토박이 심병관 어르신

▲ 심병관 어르신

심병관 어르신 : 해방되기 전에는 뭐 워낙 어려웠던 시기라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먹었지.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다 뺏기고 먹을 거리가 없었다고. 그땐 누구나 그랬어요. 비료가 또 귀해가지고 제대로 수확을 못 냈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6.25가 났어요. 그래서 인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 6.25가 나고 남쪽에서 북침을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반격을 했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난을 나와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지.

전쟁통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동생들 가족 모두가 전염병으로 죽고 나만 살았지. 그때는 약이고 뭐고 없으니까 무슨 병에만 걸렸다 하면 다 죽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다 이북으로 들어가고, 남쪽에 남은 사람들은 병 걸리

▼ 디지털장비로는 담을 수 없는 현장의 감흥들을 잊지 않기 위해 바로바로 직접 쓰는 수 밖에...

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 얼른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 덩그러니 혼자만 남았는데 자나 깨나 가족생각만 나고 그래도 뭐든 노력하니깐 되더라구. 열심히 살다보니 3남 3녀를 뒀습니다. 막내가 서른여덟인데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땄어요. 첫째, 둘째는 여기서 나랑 같이 벼농사를 짓고 딸애들은 다 출가했어요.

나 죽기 전에 통일되는 걸 봐야하는데 지금 이북에 굶어죽는 사람도 많잖아. 아파 죽는 사람들도 많고. 북한에는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의 반도 수확도 안돼요. 통일해서 도와줘야지. 저기 독일은 벌써 통일이 됐잖아. 우리가 통일만 된다면 세계1위야 머리도 좋고,

▲ 한결같이 마을을 지켜오신 어르신

▼ 애써 덤덤하게 말씀해주시는 힘겨웠던 시절의 이야기

▶ 서화2리 노인회장 박영호 어르신

▲ 박영호 어르신

박영호 어르신 : 7살 때 6.25가 났지. 홍천군 내면 미산리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은 여기보다 더 촌이어서 피난도 못가고 집에 방공호를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 소련군도 일부 나왔었는데 말을 타고 나왔더라고. 원주 문막까지 피난 갔다가 도로 들어왔는데 다시 중공군에 밀려갔지. 우리 아버지가 우마차에다가 이불짐을 싣고 미산리에서 상남으로 해서 홍천으로 가다가 인민군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살림살이 몽땅 냅두고 도로 미산리로 쫓겨가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

산속에 움막을 쳐서 숨어 지냈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는 못했지만, 중공군이 나올 때는 직접 봤어. 그 사람들 보면 20명에 1명 총을 들까말까 그냥 빈손으로 밀고 온 거지. 우리집이 촌에서는 좀 산다는 집이라 꽤 컸

▼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인터뷰가 헛되지 않도록 꼼꼼히 녹취하고 기록하는 중

▲ 전쟁없는 평화로운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며 환하게 미소지으시는 어르신

거든. 그때 중공군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밥을 해먹고 막 그랬어. 빨간옷 입고 둥그런 모자 쓴 이북장교가 우리집에 3일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중공군이 한 명 죽었는데 부엌에다 그냥 놔두고 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새끼줄로 몸을 매가지고 끌고 가서 강가에 파묻었는데 어렸을 때니까 그게 무서워서 강에를 못나갔다고. 지금도 후방에서 온 사람들은 밤에 포소리도 나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 게 불안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군인들이 훈련하는 게 믿음직스러워서 더 좋아.

어떻게 생각하면 북쪽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못살겠어서 좀 도와달라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윽박지르고 뭐 안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 좀 틀린 거지.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 한 민족이 실제로는 원수가 아닌데 원수처럼 사는 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하지만 북쪽에서 원하는 통일이 되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합의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이 되어야지.

평화를 기약하는 미래

과거는 전쟁이었고, 현재는 분단이라면 미래는 당연히 '평화와 통일' 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화리에 세워진 〈평화생명동산〉의 정성헌 이사장을 인터뷰해 그분에게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비전을 들었습니다.

▶ 북한과 가까운 서화면에 평화생명동산을 설립한 정성헌 이사장

▲ 정성헌 이사장

정성헌 이사장 : 평화생명동산의 시작은 1998년으로 당시 인제군 이승호 군수님과 자연환경문제로 자주 만나던 사이였는데 "가전리가 바로 돈이 되는 것보다 우리 민족과 평화 생명에 이로운 고장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셔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가 과거에 전쟁을 심하게 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대결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전쟁과 대결의 현장을 우리가 노력해서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바꿀 것이고,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 애를 많이 쓸 것입니다. 평화 생명 통일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돼야 합니다.

접경마을인 서화면의 장래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미 2000년에 북한 내금강에 이와 똑같은 평화생명동산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남북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 인제군 대표하고 국제 유네스코하고 이렇게 세 단체가 북에 가서 내금강에 평화생명동산 만드는 것을 다시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의향서를 체결하고 올까 하는 생각이에요.

인제군과 서화면의 장래는 하늘, 땅, 사람을 잘 모시는 생명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산업까지 20년만 하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일이지 남이 대신 해주진 않죠. 우리가 잘해야 되고, 남북이 잘해야 되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남북에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잘하고 사대 강국이 다 잘해주면 그건 100점짜리가 되고, 남북이 잘하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 일에 협조를 하면 80점짜리가 되는 거죠. 외국은 우리하기 나름

▼ 오랜 식견을 바탕으로 말씀해주시는 통일에 대한 비전들

웨딩연출 가족

◀ 거리인터뷰에서 만난 많은 서화면 주민분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 ▲ 인터뷰 마무리 후에도 끊이지 않는 논의

이지만 외국이 우리 통일을 대신 해주진 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잘해야 되요. 남북이 잘하면 한 60점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 계속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여기서 받아쳐가지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거지.

역으로 북이 잘못했는데 우리만 잘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북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잘 다뤄서 정말 잘해야 하거든. 우리가 잘하려면 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잘 모르고 막 할 수는 없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중국과 일본을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재통합되어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좋은 거예요.우리 민족에도 좋고 전세계에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좋기 때문에 통일이 꼭 돼야 해요.

집안에서 다투는 일이 없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화목하지,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다툼이 없다는 것은 평화의 최소 조건이지.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모습은 우리 인류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실현 된 거니까 그 꿈은 소중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 평화생명동산

DMZ 동북부의 산지로 내금강 최단거리 지역인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에 위치한 평화생명동산은 '오늘 우리는 전쟁, 대결, 죽임, 차단의 DMZ일원을 평화와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내기 위한 뜻과 정성을 모아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을 창립합니다' 라는 선언과 함께 지뢰를 캐낸 자리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평화나무' 라 부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서화면 가전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우안습지에 세계 유일의 지뢰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한반도의 식물종을 수집, 재배, 연구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미래의 종자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DMZ

인제군 에필로그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쳐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봅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 참여학생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인제고등학교

2학년 / 최성은, 김시명, 김가영, 김단비

1학년 / 함영주, 윤지원, 차혜은, 방희지, 한공호, 정도영, 김성은

| 참여강사

정무교 대학강사 김정환 교사 김동길 인제문화원 이사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chapter 5. 고성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바다

동해 최북단 대진항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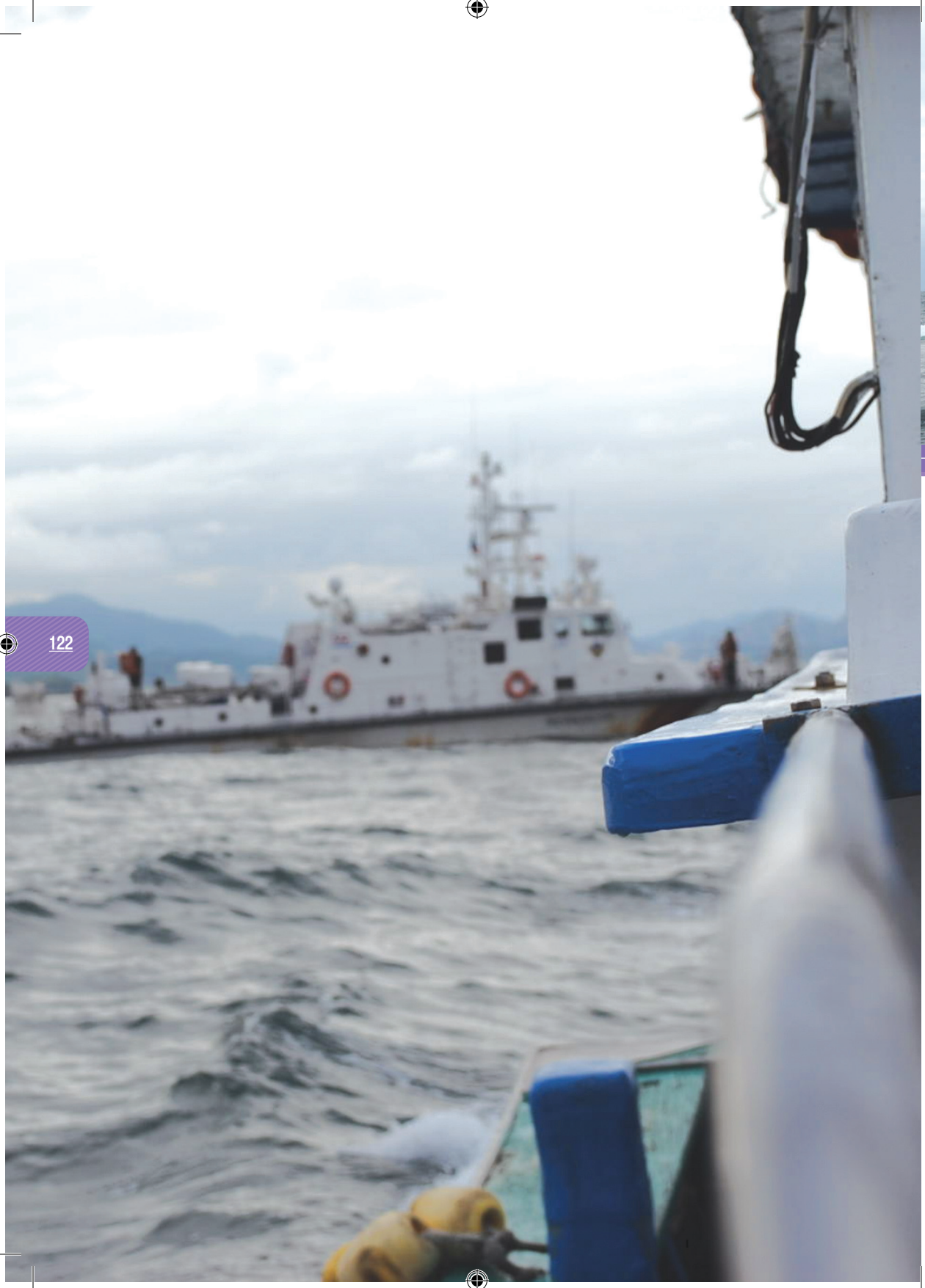
2011 향토사 대중화 사업 기획 프로그램

대진항

동경 128° 16′ 000 북위 38° 32′ 080

대진항을 떠난 어선들이 엔진 소리를 줄인 채, 일렬횡대로 늘어서 있다. 해변가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있는 등대와 그 산의 능선을 따라 뒤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또 하나의 등대가 있어, 이 두 개의 등대와 멈춰선 어선들을 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일직선상이 바로 어로한계선이다.

원래 이 한계선을 넘어 가서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마일 정도 가면 저도(猪島)라는 작은 섬이 있다. 돼지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돼지가 아니라 한 마리 예쁜 고래같이 보인다. 한계선 넘어 북쪽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오랫동안 조업을 하지 못해 해산물이 풍부하여 어민들의 조업 요청이 이



▲ 해양경찰대 경비정

어졌고 그렇게 개방된 곳이 바로 저도 어장이다. 지금 시각이 오전 5시 40분. 해양경찰의 점호가 있고 6시에 싸이렌이 울리면 40여척의 배들은 일제히 저도를 향해 달려간다. 해는 바다위로 솟아 벌써 한 뼘이나 하늘 위에 걸렸다. 일주일 가까이 태풍 때문에 조업을 하지 못해서인지 어부들의 표정이 조금 긴장되어 보인다. 해양 경찰의 경비선이 우측으로 물러나면 배들은 다시 엔진소리를 높이고 푸른 물을 하얗게 가르면서 저도를 향해 달려 나간다.

5분 거리, 섬 주변에 자리를 잡으면 엔진을 멈추고 드디어 해녀들이 하나 둘 물속으로 뛰어든다. 「바다는 우리의 은행」이라는 항구 초입의 문구가 생각난다. 해녀들은 저축해 두었던 돈다발을 꺼내려고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든다. 잠시 후 성게를 한 움큼 움켜쥐고 물 위로 올리는 해녀. 그는 대진 나잠(裸潛)회장이다. 물안경 속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니 기쁜 모양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해녀인 그녀가 수영을 못한다는 것. 그래도 6, 7m 바다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해산물을 건져 올린다. 언젠가는 40kg 대형 문어가 붙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연세가 있으신데……" 했더니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겠단다. 물질하는 해

녀들의 머리 위로 저만치 해금강(금강산)이 잔잔한 물결따라 엷은 안개 속에 흔들린다.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 깃든 호수도 그 속에 있으려니 생각하니 해금강이 안개 속에 더 신비롭다.

우리의 땅. 가고 싶은 곳. 그러나 지금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굳게 닫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의 긴 행렬을 볼 수가 없다. 아직도 남북 사이에는 풀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다. 뱃머리를 돌려 항구로 돌아온 곳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 현재로서는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어항(漁港)이다. 북쪽으로는 통일 전망대와 휴전선, 그리고 북의 금강산, 남쪽으로는 멀리 설악산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화진포 호수와 화진포 해변이 아름다운 곳.

항구로 하나 둘 들어오는 배마다 해산물이 가득하다. 덜컹거리며 저울 위에 올라앉은 놈은 오늘 잡힌 문어 중에 제일 큰 20kg짜리 대형 문어다. 물량도 적고, 입찰자

들도 많지 않아 북적대며 요란스런 경매장 풍경은 아니지만 펄떡거리는 활어만큼이나 사람들의 호흡도 힘차다. 잡아온 사람들이나 사려는 사람들이나 이곳에서 살아온 자신들의 일상에서 터득한대로 거래를 한다. 경매장이 정리되고 입항한 배들이 잠시 쉬는 동안 평온함이 사람들 사이에 내려앉는다.

사라진 명태

대진항도 명태로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단다. 명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누가 다 먹어치운 것인지. 살아갈 환경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인지? 가장 큰 이유는 수온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인간들이 너무 얄밉게 느껴진다. 명태가 오랜만에 조금 왔다. 수색대일까, 저들의 판단을 돕기위해 수온을 적절히 낮추자. 사람들아!

▼ 잡아온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의 밀고 당기는 흥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어시장

▶ 6.25 참전용사회 회장 임복천 어르신

▲ 임복천 어르신

임복천 어르신 : 19살에 해군에 지원입대를 했지. 종합학교에서 6개월 수료하고 휴가차 나왔다가 비상소집이 걸려서 들어갔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강제로 훈련을 시키더라구. 일주일후에 미국에서 들어온 군함을 탄 것이 처녀 출동이었지. 인천상륙작전하기 전에 해군 단독으로 인천 옹진군 영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했어. 영국 군축함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해군 군함 9척, 어선 10척을 동원해서 1950년 8월 20일 인천영도상륙작전을 성공했지. 그 때 충무무공훈장을 탔어요.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때는 화랑무공훈장을 타서 훈장이 2개야.

휴전되고 해군생활 6년 만에 제대해서 대진항으로 왔지. 그땐 100m쯤만 나가도 고기가 무진장 많았어요. 명태도 많이 나고 임연수어도 많이 나서 먹고 살 수 있었지. 70년대 이전에는 국내산 명태의 70% 정도가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었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명태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했었는데 이제는 통계상으로 아예 안잡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나도 배를 두 척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면 만선입니다. 대진어판장에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제사 지낼 때 갈치, 삼치, 세치, 참치처럼 '치' 자 들어가는 고기는 안쓰는데 도치는 씽퉁이라고 해서 쓰고. 그게 내려오는 전통이야. 전에 '치' 자 들은 고기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뱀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안올린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어요. 첫 조업을 나가서 처음 올라오는 고기는 따로 놓는데 육지에 들어와서도 따로 해서 건조합니다. 건조해서 고사 때 쓰던가 제사 때 쓰던가 그렇죠. 미신같지만 어업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하죠. 또 요즘엔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여자는 배에 태우지 않았지. 속된 말로 '재수없다' 고. 그리고 "야, 나 내일 고기를 얻으러 갈 테니까 고기 좀 줘"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 말을 듣고 고기 잡으러 나가면 재수 없어서 고기를 많이 못 잡는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조그마한 배는 거의 부부가 조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과 달라진 거지.

63년에 대진 어촌계장을 하면서 추진위원 10여명과 대진고등학교 설립 준비했어. 그래서 현내면 대진에 고등학교 처음 세우게 된 거지. 요즘 학생들은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0여년 가까이 6.25 참전용사회 회장을 하면서 전쟁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거진, 간성 순으로 금년에 고등학생 교육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선배들

▼ 조업중인 어선들

▲ 살아오신 이야기 외에도 학생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뜻깊었던 시간

> 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그냥 학교만 다니고 이렇게 성장해서는 다가 아니지. 근본적인 뿌리를 알아야 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걸 늘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6.25가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치러졌으며,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가 없다. 모든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지금도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우리 세대다. 처음과 끝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동네에 6.25의 흔적인 휴전선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세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 '밥조개' 가리비 양식을 하시는 강석돌 어르신

강석돌 어르신 : 6.25 끝나고 얼마 안돼서부터 대진에서 살았어요. 그 전에는 삼척에 살았는데 태풍 때문에 선박이 다 파손되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사를 왔지요. 옛날이야 고생을 많이 했죠. 선박도 소형이고 기계도 디젤이 아니고. 우리 어선들이 북한 경비정에 납치를 많이 당하기도 했고. 제일 납치가 많이 된 해가 67년, 68년, 69년이에요.

그때는 지금같은 체계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군을 따라서 월선하는 배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지선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치되기도 하고. 지금은 질서가 딱 잡혀 있어서 해경에서 마이크로 방송하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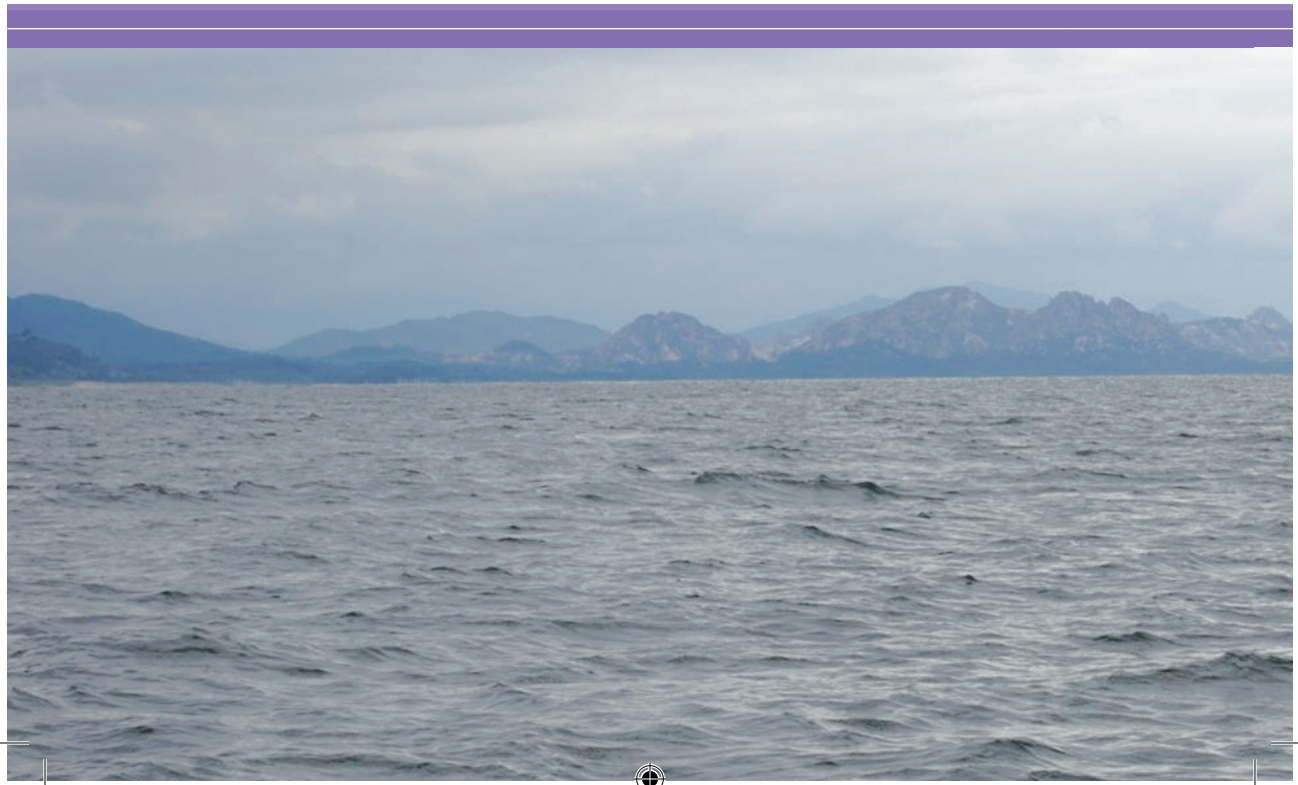
지금은 마지막 어로한계선을 장비로 다 알 수 있는데, 그 전에는 해변가와 산쪽에 있는 어로한계선 등대를 보고 알았지. 여기는 북한하고 가까이 있어서 어로통제가 다른데 보다 심하기도 하고, 저쪽 서부 전선에서 북한하고 심상

▼ 먼 바다에서 경비중인 해군 경비함

치 않으면 여기도 같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죠.

그전에 자연산 가리비가 나올 때는 가리비껍데기를 밥주걱으로 많이 사용했지. 그래서 '밥조개' 라고도 불렀어. 93년부터 가리비양식을 시작했는데 한 3년간 잘 되다가 97년 태풍이 지나간 후에 수온 때문인지 모두 폐사했지. 수년간 고생하다가 금년부터 다시 가리비가 잘 됩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팔아요.

가리비는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양식을 시작했는데 씨앗부터 성패까지 최소 24개월을 키워야 상품화할 수 있지. 양식기간이 오래 걸리니 어민들은 투자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정부 보조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거야. 가리비 양식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치패이식작업을 한 어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바다 속 자연산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키우는 다른 양식하고는 다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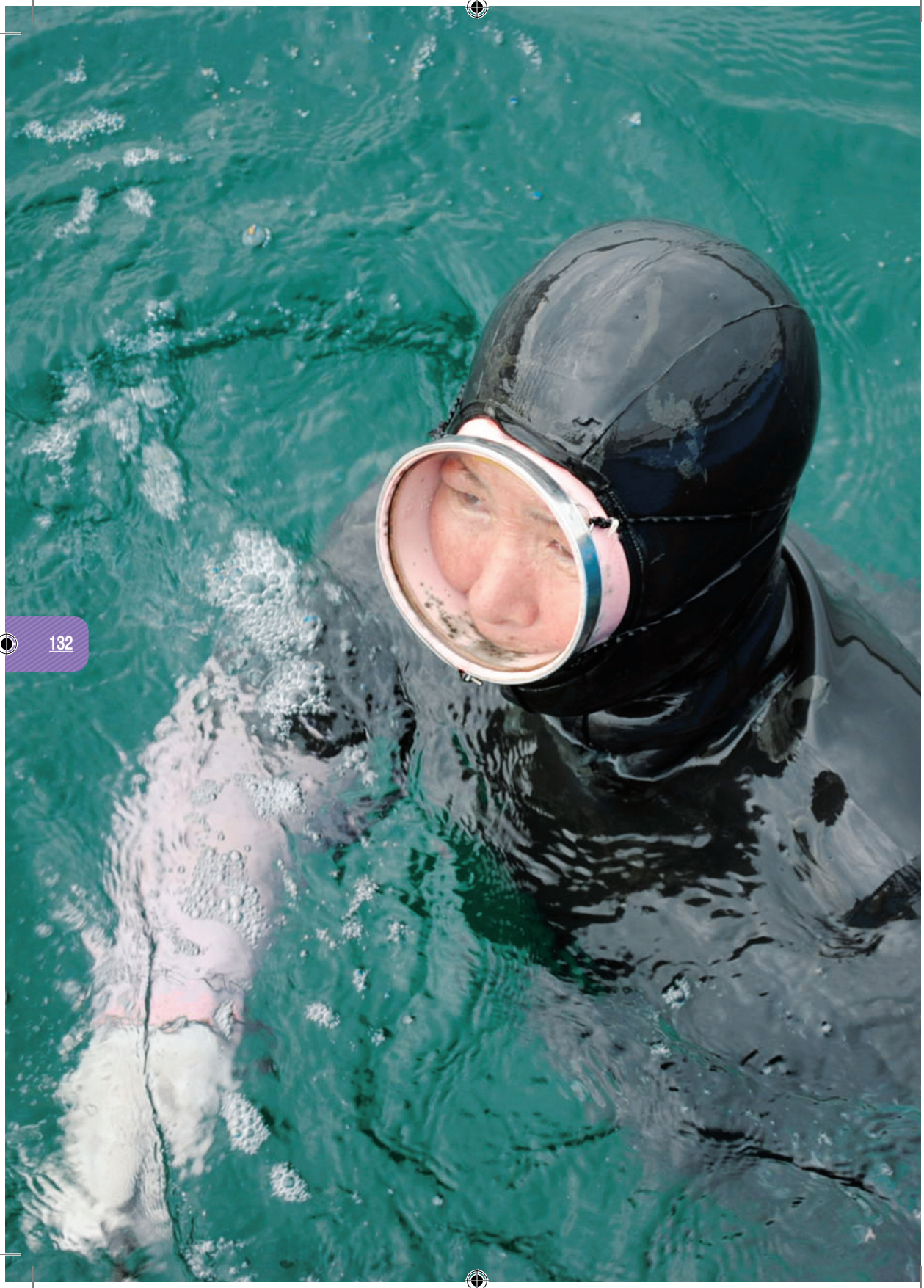


가리비는 먹는 부분이 2개로 구분되는데 가운데 계란모양 관자가 있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흰자위 같은 부분이 있지. 대부분 맛있다고 가운데 것만 먹는단 말이야. 그런데 독소가 있어서 한 번에 많이씩 먹으면 안 돼. 특히 임산부는 더 조심해야 하고.

선박이 입출항 할 때 경적을 울린다. 서로를 알리고 안전하게 운항 하도록 하기위한 신호다. 우리의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일 하나만으로 살아왔고 우리를 기르셨다.

과연 우리는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부모님들의 경적소리를 듣고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내 인생의 항로에 대하여 생각해본 일이 없다. 그래도 잘 사는 것은 어떤 힘 때문일까? 오늘따라 부모님들이 많이 늙으신 것 같다.

▼ 바다 건너 멀리 보이는 북녘 땅. 구선봉, 해금강



▶ 수영 못하는 해녀 대진항 나잠협회 회장 오용분 어르신

오용분 어르신 : 대진항에서 해녀로 생활한 지는 35년이 됐어요. 원래 충청도 음성이 고향인데 여기로 시집와가지고 1년 살다가 해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 특별히 누구에게 배웠다기보다는 옛날에는 다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무작정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눈으로 배운 거지. 오히려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작업을 심하게 못해.

나잠이라는 뜻은 아무 장비 없이 알몸으로 물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바다에 잠수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인데 여자면 해녀, 남자는 해남이라고 해. 대진항에는 한 60, 70명의 나잠해녀가 남아있지. 여름에 성게만 하는 남자도 한 5~6명 되요.

여름에는 물이 따뜻해지니까 모든 게 수월해요. 더울 때는 모든 게 펴지고 추우면 오그라드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수압이 높아져서 호흡이 가빠지니까 깊이는 못들어가거든. 제일 깊이 들어간 것은 40대 중반에 한참 물질할 때 한 13발 정도는 들어간 것 같아요. 한 발에 1미터 50만 쳐도 20미터는 넘지. 물가는 얕게 뜨니까 납을 많이 차고, 깊은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납을 조금 차야 돼, 그래야지 내려가서 활동하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 납이 무거우면 올라오질 못해.

내가 잠수만 할 줄 알고 수영을 전혀 못해. 파도가 많이 쳐서 배에 사고가 났다 하면 오리발, 수경 없이 분간을 못해서 큰일 나는 거지. 요즘은 예전같지 않아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길어야 4, 5시간정도만 일을 하지. 해녀복도 광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동복 한 벌, 춘추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렇게 구분

해서 입어요. 물질하다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는데 한번은 문어가 붙어 가지고 몇 번 죽을 뻔 했어요. 2킬로 짜리 정도만 되도 사람이 꼼짝을 못하지.

문어는 산란기에 암놈 한 마리만 돌구멍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으로 수놈들이 한 7, 8마리 있어. 재수가 있으면 한군데에서 100킬로씩 이렇게 잡기도 해. 해녀가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지만, 그래도 이 일로 어려운 살림 살리고 자식들도 원하는대로 공부도 시켰으니 보람이지.

▼ 조업중이신 해녀어르신들

▶ 수심 40m가 삶의 터전인 관리선협회 박병헌 어르신

박병헌 어르신 : 원래는 경남 태생인데 통영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간성에서 다녔어요. 처음 대진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좋았지. 그때만 해도 명태가 잡힐 때는 돈이 넘치다가 다음에 봄에 명태가 떨어지면 또 굶는 거야. 또 장비가 부실하다보니 잠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았고. 잠수기선에서 일을 한 지는 20년쯤 됐을 거야. 누구말대로 특별히 기술도 없는데 눈으로 맨날 보는 거니까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멋모르고 들어간 거지. 잠수기선은 3명이 타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머구리와 위에서 장비를 조정하는 2명이 함께 하는 나가지.

예나 지금이나 잠수기는 해삼, 성게, 다시마지. 전에는 패류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문어를 주로 잡고. 해산물은 어차피 고갈되어 가는 상황이고, 양이 많아서 가격이 낮은거나 지금처럼 양은 적더라도 가격이 좋은거나 생활수준은 비슷해요. 한가지 안타까운게 있다면 어구뿐 아니라 어업법에도 일본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고쳐가야 해요. 예를 들어 이걸 투구라고 하는데 갑부, 어사가네, 모또 후꾸 전부 일본말로 다 돼 있는 거야. 치어라는 부르는 새끼고기나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보다는 한 미, 두 미 하는 것도 다 일본 말이지. 머릿속에 박혀서 고치기가 쉽질 않네.

해녀들의 수심 10m 내외에서 작업을 한다면 잠수부들은 수심 40m까지 내려간다. 물론 장비를 갖추고 들어간다. 하지만 수압관계로 건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의 삶의 터전은 물속 40m일 수밖에 없다. 아직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않을까?

▶ 선박 수리업을 하시는 최복영 어르신

최복영 어르신 : 85년에 대진으로 와서 27년째 배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농기계 수리를 했는데 예전엔 배에 농기계 엔진을 많이 썼거든. 직접 어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배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어업인들이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그렇지.

대진에는 소형, 대형선박 다 합쳐서 160척정도 있는데 요즘에는 기계들이 좋아져서 수리할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여년전만해도 납철작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거의가 스텐레스 재질이라 일 건수가 적어지는 거지.

그 무렵에는 기계 엔진이 한 척도 없었어요. 시동방식이 지금하고 달라서 에어로 시동을 거니까 아침마다 시동 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잠을 못 잘 정도였으니까. 경운기 엔진을 갖다가 쓰던 시절에는 사고도 많아서 의족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고는 없는 대신에 그물을 감다가 빨려 들어가서 죽거나 하는 일이 한 번씩 있죠. 작업 중에 떨어져서 익사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큰 배는 여러 사람이 승선하니까 누구하나 물에 떨어져도 구조가 되는데 작은 배는 혼자타고 나가니 사고가 많아. 파도에 밀리던지 아니면 큰 문어를 끌어올리다가 넘어가는 거지. 혼자서는 살아나오지 못해요.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3일 이내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시신이 멀리 간걸로 추정해서 해녀나 해남들도 물 속 작업을 안들어가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동해안도 밀물썰물이 있어요. 그게 심하게 않아서 그렇지. 아침에 어판장 수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바다 쪽으로 많이 흐를 때는 수위가 30 ~ 40 cm 내려갑니다.

▲ 어르신의 손을 거쳤을 대진항의 어선들

요즘은 기후가 점점 더워지니까 물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예전에 왔던 고기들이 안 오고, 새로운 고기가 자꾸 올라오거든. 예전에 그 많던 명태들이 하나도 없는게 이해가 안갈 정도야. 어판장에서도 어쩌다가 명태 한 두 마리가 들어오는 날이면 중매인들이 '명태다!' 이렇게 소리를 친다구. 얼마나 명태를 본지 오래됐으면 소리를 치겠냐구요.

워낙 고기가 없으니까 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름이 면세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고가라서 고기가 많이 나면 상관없는데 고기는 없는데 갔다 오면 기름값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름값만큼은 더 저렴해졌으면 하지.

▶ 대진항 경매사 최승노 선생님

▲ 최승노 선생님

최승노 선생님 : 수협에 입사하자마자 6년째 경매만 하고 있어요. 어민들은 새벽 3시에 출항합니다. 배가 돌아오기 전인 6시 반에 문어 사전입찰을 합니다. 사전입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배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문어배가 들어오는 9시에는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을 말해요. 경매하는 순서는 살아있는 고기 다음에 죽은 고기에요.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강릉 아래쪽 지역은 수화식으로 합니다. 손으로 해가지고 가리고서 털어주고 하는 그걸 수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이북지역으로 접경지역쪽으로는 표찰식으로 하는데 종이에 적어서 경매사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죠. 최고가에 낙찰되시는 분을 오픈하면서 낙찰된 중매인을 부르는 거죠.

마리당이 아니라 여기 큰 프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서 한꺼번에 금액을 적는데 어종이 다른 경우에도 20마리가 한 급이에요. 급당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문어 같은 경우는 키로로 하고 도치나 그런 잡어 같은 것은 야마라고 해서 몽땅으로 하죠.

어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고기가 담긴 대야를 저희 앞에 놓거든요. 고기 품명을 불러주면서 이걸 몽땅으로 할 건지 야마로 할 건지 키로로 할 건지 그걸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중매인이나 화주들은 제 얘기를 듣고서 적는 거에요. 야마로하면 총 키로수의 합친 금액을 적어주는 거고, 키로로 한다면 키로 단가를 적어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경매할 때 여기에서는 종 대신 호루라기를 불어요. 종이 많이 파손되고 녹슬어서 호루라기로 변경했는데, 호루라기를 불면 중매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 긴장감 넘치는 경매의 순간

경매는 어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림과 함께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작업의 대가가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많으면, 또 날씨가 아주 좋으면 해산물 가격도 좋아집니다. 가격이 적힌 표찰이 경매사의 손으로 넘어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격을 읽어 갑니다. 몇 사람의 가격 표찰이 오고 가고, 문어 12마리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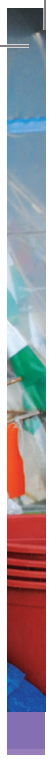
▲ 김수한 어르신과 질문하고 답변 중인 학생들

▶ 대진항 선외기협회 회장 김수한 어르신

▲ 김수한 어르신

김수한 어르신 : 대진 선외기 회장한지가 벌써 십 몇 년이 됐네. 엔진이 배의 바깥에 달려 있다고 해서 선외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로 '유자망' 을 가지고 활어회감으로 쓰는 산 고기만 잡지. 예전에는 대진항에 선외기가 꽤 되었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러다보니 한 15척쯤 남아 있는 거 같아. 근데 금년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협회 회원 15명들이 비오고 바람 불고 하니까 노다지 놀았잖아요.

요즘 하루 나가면 10만원, 20만원씩 버는데 원래 해수욕철에는 보통 30만원, 40만원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하는데 고기가 원체 없으니까 최



고로 악순환이에요. 앞으로 10년 후면 배가 엄청 줄어들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 우선 어업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배 숫자가 적어지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지요.

출항하는 시간은 계절마다 다른데 5월부터 9월 말일까지는 새벽 3시, 그 후는 새벽 4시지. 들어오는 시간은 제한이 없는데 되도록 경매하는 7시에는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고.

선외기는 보통 2명이 타는데 요즘은 거의 부부가 타지요. 한 달 평균 15일 정도 조업을 하는데 기름값 빼고 뭐하고 하다보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배를 타다보면 와이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맘에 안차니까 뭐라 하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늦고 이러면 의견충돌이 나요. 그러면 돌아와서 미안하게 됐다 한마디 하고 말아요.

여자가 배를 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특히, 고기잡이 배에서는 아주 심각 했지요. 출어하기위해 아침 일찍 뱃머리로 가는데 여자가 앞을 가로질러 가면 그날 출어는 포기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서 티격태격 해도 부부가 함께 작업을 나가면 좋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마음 편하고 서로 의지하며 믿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뱃전이 흔들려도 부부는 한결같이 바다로 나갑니다.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탐사

오늘은 직접 배을 타고 최북단 저도어장을 직접 탐사 하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진항 어선출입항통제소 앞에 모였다. 우리가 탈 배는 '재건호'라는 4톤짜리 어선이었는데 저도어장을 향하여 북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어장에는 해녀 할머니 여러명이 잠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선외기 어선들도 멀리서 조업 중이었다. 저도어장은 어로한계선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북위 38도33분으로 일 년 내내 조업하는 게 아니고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진항과 초도항 어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가한다. 처음 입어할 때는 어선들이 일정한 곳에 모여서 대기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일제히 출발 하는데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이 먼저 출발하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시 40분에 집합하여 20분간 점호를 하고 6시에 출발하는데 안개, 바람 등 기상이 나쁘면 출항을 할 수 없다. 조업 중에 조류가 북으로 흐르거나 고기떼를 쫓다가 어로한계선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경선이 정박하여 지켜준다고 한다.

▲ 시원한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배는 대진항을 지나쳐서 바로 남쪽의 초도항을 향하였다. 우리가 탄 배는 초도항과 항구 바로 앞에 위치한 금구도 사이를 지나 화진포 해수욕장 앞에서 김일성 별장 뒤 암반 해변을 돌아 다시 대진항으로 돌아 왔다. 초도항 앞에 있는 금구도는 최근 어느 역사 학자에 의해 광개토대왕의 무덤(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학설이 제기 되었다고 한다.

▼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된다는 학설이 제기된 금구도

고성군 에필로그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힘든 일을 해 오신 부모님들께 아무것도 모르고 투정부린 우리들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진은 비무장지대와 가까워서 물에서 고기를 잡을 때조차 마음을 졸이며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옛날처럼 고기가 많이 잡혀 활기가 넘치는 대진항을 기대해 봅니다.

| 참여학생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대진고등학교

3학년 / 이　진, 손성열　2학년 / 정서희, 허서영, 임상민, 조재용
1학년 / 정다움, 전지은, 박수연, 박주윤, 정진현

| 참여강사

송운석 고성문화원 이사　최승제 前국어교사

DMZstory

Photo Gallery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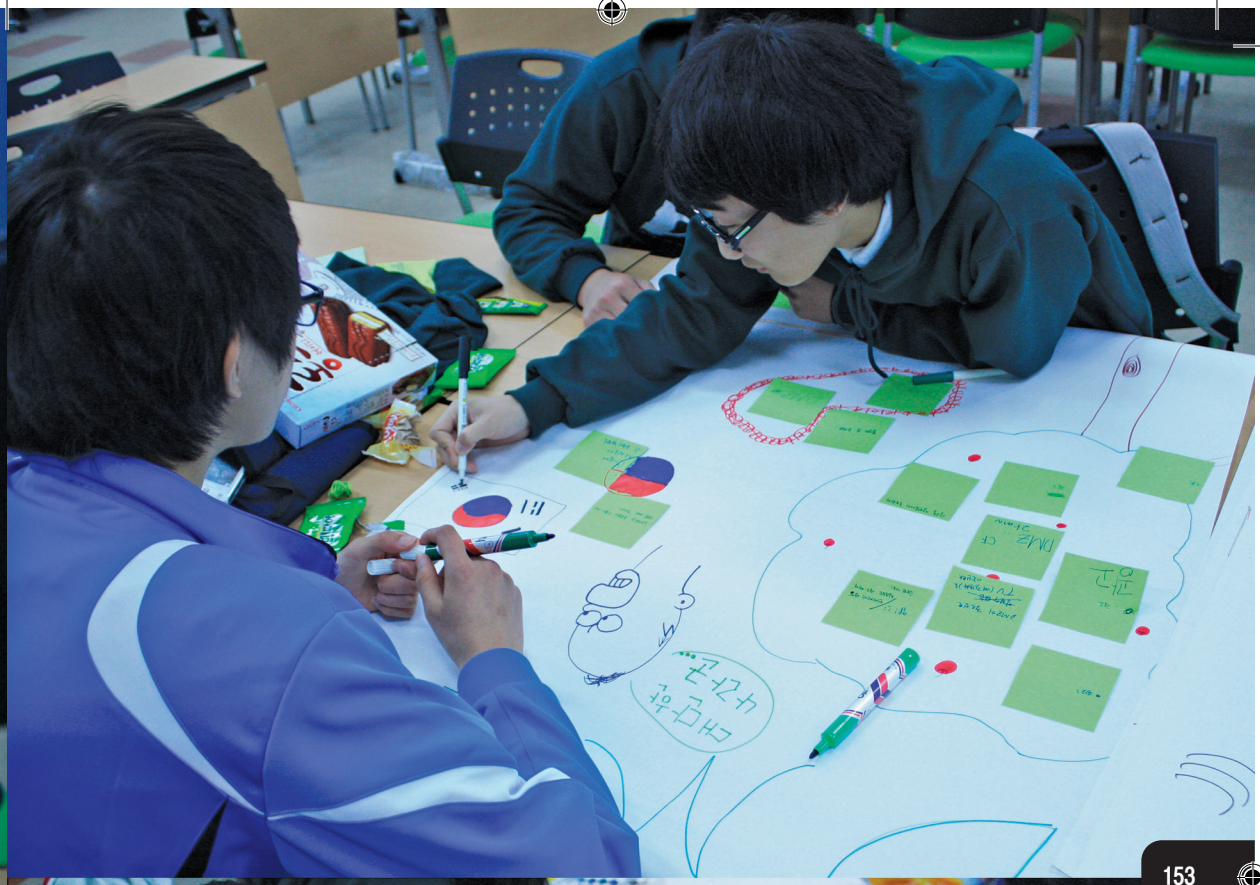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DMZ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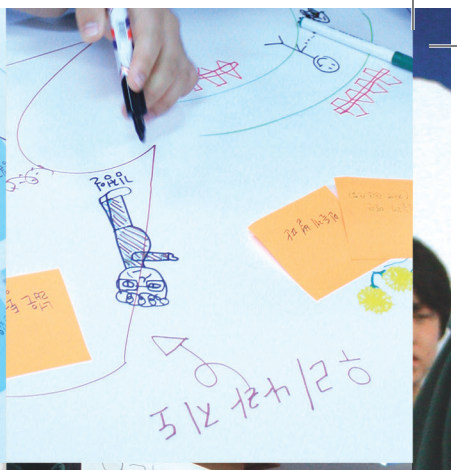
Part 1. 2011년 5월 7일 ~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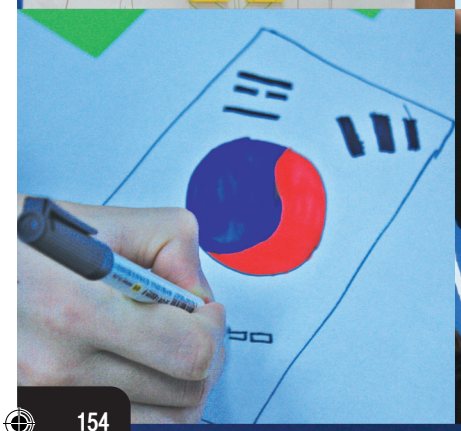
DMZ 스토리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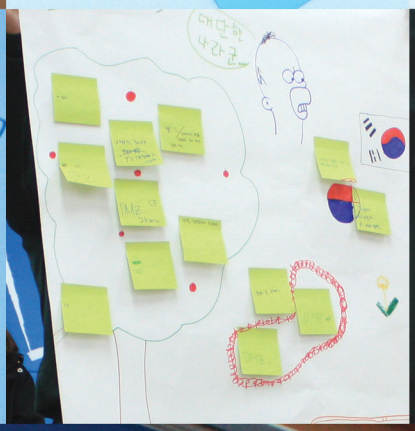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기획프로그램

정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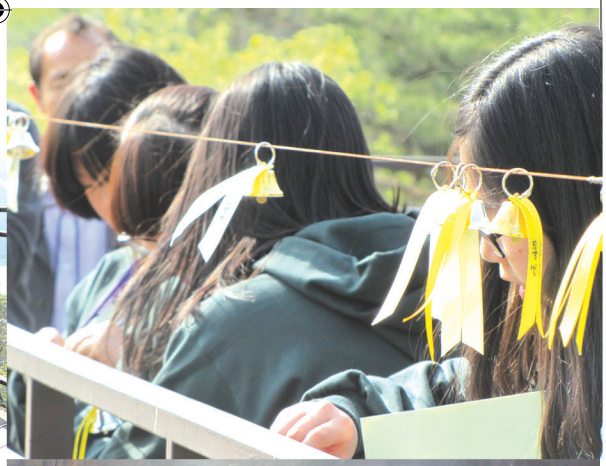


DMZ를
알리자!
TV
KBZ

DMZ
DMZ
STORY

DMZ
STORY

DMZ
STORY



DMZ
STORY

Unlimit

DMZ story

Photo Gallery

부 록

사진으로 보는 DMZ story

Part 2. 2011년 8월 3일 ~ 5일

DMZ 투어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2011

지 뢰
MINE
For
Unification!

CALIFORNIA
DREAM
Indians

ART
ship
THE ROAD IS MADE BY
WALKING THROUGH

PENDA
ENJOY YOUR LIFE
ITALY

Dickies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기획프로그램
DMZ STORY

HOWL 지식 나눔 캠프
한국DMZ평화생명동산교육마을
2011 향토사대중화사업 기획프로그램
DMZ STORY

REQUIRED
EST. 1923
N.T.JEANS

CH
BRAV
MICKEY

ballet dan
이예림
최은송
김예지

DMZ story

Photo Gallery

부 록

사진으로 보는 DMZ story

Part 3. 2011년 5월 ~ 9월

못다한 이야기

祥招碑

RØDE

New Jeans
done on earth
Neo Style

(연평도)

웨딩연출 가족사진
마음 사진관

아득한 성자

DMZ story,
첫 번 째 이 야 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들...

학생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조금은 어설프고 미흡한 사진이지만
DMZ와 함께한 2011년 우리들의 모습에 박수와 격려 보내주실거죠.^^*